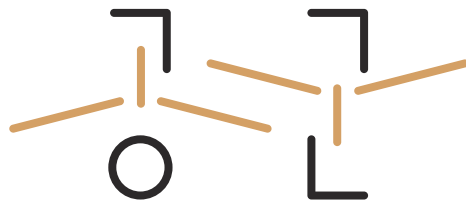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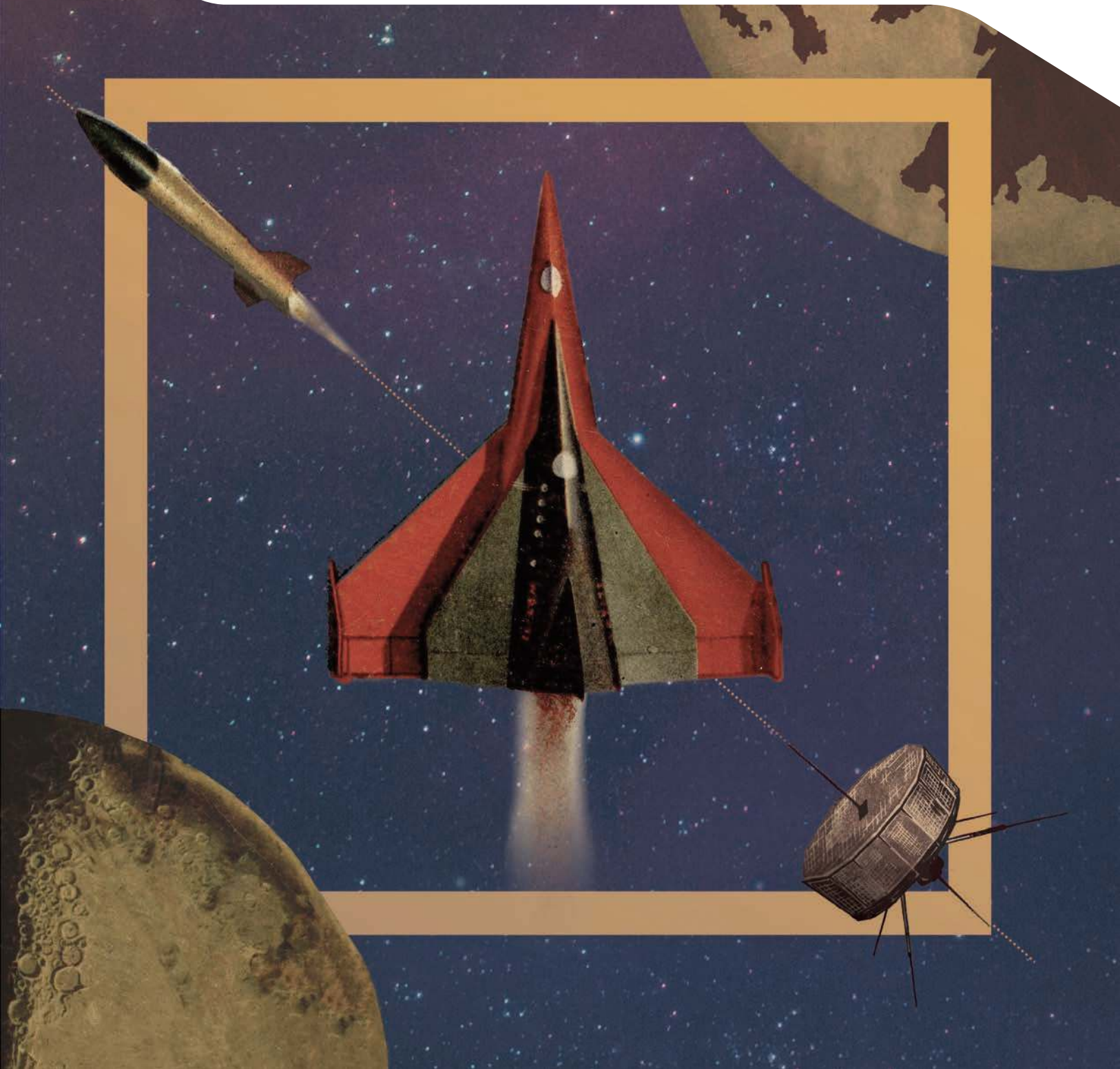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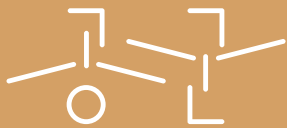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2019
09
4 9 5

<http://afzine.co.kr>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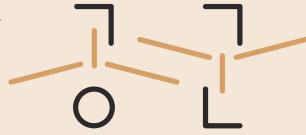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며

9월호 표지는 1950년대에 발행된 『코메트』들에 실린 그림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땅에 공군이 탄생한지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지만, 당시 공군 선배들이 그려낸 미래 공군에 대한 포부는 예사롭지 않았습다. 날렵하고 세련된 항공기와 인공위성, 우주의 모습은 마치 첨단항공우주군으로 눈부시게 발전할 우리 공군의 미래를 예견한듯 합니다. 올해 10월 1일은 공군 창군 70주년입니다. 그동안 공군은 선배들의 기대처럼 쉽 없이 발전하며, 영공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공군은 뿌듯하게 올해 10월 1일을 맞이할 수 있으며, 그 기쁨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며 공군이 준비하는 다양한 이야기, 월간『공군』이 정리했습니다.





9월 27일(금)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진행될 '공군 창군 70주년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는 안태현 공군박물관장(좌)과 문신영 주무관(우). 월간『공군』 편집실은 공군박물관을 방문하여 특별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관련기사 : 8~11쪽)



05	화풍지설	마테오 리치
06	기획특집	창군 70주년 특별전 미리보기
10		70주년을 기념하는 방법들
14	외부기고	최용덕 장군의 항적(航跡)을 따라서
16	르포르타주	위협을 잠재우는 사람들
22	내 옆의 공군인	김경오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
28	그날, 우리 하늘	항공사상과 항공일
30	우리 부대는	제10전투비행단
32	공군소담	장갑
36	지금 이 순간!	참모총장 동정 & 공군 소식
40	공군인의 편지	병장 김장한 등 3명
42	책 읽는 공군	『뇌는 탄력적이다』 & 『90년생이 온다』
44	우주의 이해	별이 되고 싶은 사람, 우주인
46	생활 타이포그래피	도형의 사용
48	공군인의 마음 건강	새로운 질병코드 '6C51'을 아십니까?
50	첫 독자의 편집후기	『패시브 인컴』
52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용기를 말하다.
54	생각하는 그림	진열대 앞에서
56	기준의 기준	2019?



표 지(앞) 창군 초기에 그린 미래 공군의 모습
(『코메트』 18, 20, 32, 33, 44호 표지 발췌)

그 래 픽 병장 홍인선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9월 1일(통권 제495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인철

편 집 인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셉, 8급 김모아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080353)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

우리나라의 천주교 전래는 선교사가 아니라 서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 서책의 이름은 천주실의(天主實義)인데 조선 중기의 대학자인 이수광(1563~1628)의 대표적 저서 지봉유설(芝峯類說)에 처음 소개되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천주실의는 한자(漢字)로 집필된 최초의 천주교 교리서였습니다. 이 책은 놀랍게도 이탈리아 출신의 예수회 신부 마테오 리치가 썼습니다. 어떻게 이탈리아인인 그가 완벽한 한문으로 중국은 물론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기독교라는 새로운 사상을 전파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아도 놀라울 따름입니다.

1552년 이탈리아 마체레타의 부유한 가문에서 출생한 마테오 리치는 스무 살이 되는 1571년 예수회에 입회한 후 7년간 로마대학에서 철학과 수사학은 물론 수학, 과학, 천문학, 기계제작 등 다양한 학문을 공부한 엘리트 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1582년 아시아 선교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상륙한 곳이 지금의 마카오였습니다. 희망봉을 돌아 인도를 거쳐 마카오에 이르는 여정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목숨을 건 여정이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동양과 서양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극히 미약했고 소통의 창구가 없었습니다. 동양은 유불선(儒佛仙) 사상으로, 서양은 기독교 사상으로 우주와 세상을 각자 이해하는 시대였습니다. 같은 태양 아래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빙하보다 더 두터운 어마어마한 문화적 이질감을 깨고 동서양의 철학과 사상이 교호(交互)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마테오 리치였습니다. 1610년 북경에서 사망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그는 중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국 입성 초기 6년간 중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며 유교와 불교의 경전을 공부했는데 이는 훗날 중국의 지도층과 교류하며 선교활동을 펼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교경전에 박식한 외국인인 현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어적으로 한자(漢字)의 깊은 뜻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진보한 서양의 수학

과 과학을 그들의 언어로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성리학의 철학체계로 기독교 사상을 집필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 사대부 수준의 학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마테오 리치만큼 동양과 서양을 완벽히 이해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는 동양인과 서양인을 넘어선 최초의 세계인이었습니다.

70년 전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하여 창군될 당시만 해도 하늘과 바다와 땅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육해공군의 작전영역을 정확히 한정짓는 기준이었습니다. 군이 다르다는 것은 곧 작전과 교리가 다르고 향유하는 문화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눈부신 지금 육해공군은 모든 작전개념에 공통의 공간이 확대되면서 구분선이 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그 공통의 공간을 기회와 시너지의 영역으로 재편해야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합동성은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때 맥시멈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군을 망라해서 전투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모군(母軍)을 넘어서는 군사전략가의 시각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익숙한 것만이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휘관들이 경험에만 의존하며 자군에 국한된 지식체계에 매몰될 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후배들은 타군의 작전, 교리, 무기체계에 정통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를 성리학 체계로 설명해 낸 마테오 리치의 혜안을 본받아야할 때라고 봅니다. 자군의 언어가 아닌 타군의 언어로 자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주는 남의 재주를 나의 재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를 아우르는 영역입니다. 영공을 지키는 우리 공군이 서로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허브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해야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군의 마테오 리치가 공군에서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AF

공보정훈실장 대령

강성주

창군 70주년 특별전 미리보기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의 잔치를 준비하다



안태현 공군박물관장



전시학예담당 문신영 주무관

공군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들이라면 모두 주목! 공군박물관이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이하여 ‘공군 창군 70주년 특별전’을 개최한다. 공군을 사랑하고, 공군을 더 알고 싶은 이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다. 특히나 이번 전시는 다양한 관람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울 용산의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다. 벌써부터 가슴 설레는 소식에 공군박물관을 방문하여 특별전과 박물관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AF : 안녕하세요. 전시 준비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군 창군 70주년 특별전 개최 소식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독자들을 위해 공군박물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문신영 주무관 : 공군박물관은 대한민국 공군 관련 유물 수

집, 관리, 보존, 전시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1964년, 서울 대방동에서 개관한 공사기념관이 모태이며 1985년에 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할 때 공군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근대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록문화재를 비롯해 각종 항공기와 군사 문화유산 17,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 외에도 매년 1회의 특별전시를 운영합니다. 작년에는 최용덕 특별전을 개최했고, 올해는 전쟁기념관에서 창군 70주년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AF : 특별전 준비기간이 아닐 때에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나요?

문신영 주무관 : 박물관의 임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유물 수집, 관리, 보존, 전시 업무 외에도 최근에는 교육 업무가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 역시도 분야별 전시학예, 유물기록, 교육연구, 관리운영으로 직책을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유물들은 박물관에 구비된 수장고에 보관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요. 그러니 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소중한 공군 역사를 위해 박물관에 기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AF : 적은 인력으로 유물을 관리하고 전시도 진행하려면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특별전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문신영 주무관 : 이번 창군 70주년 특별전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 70년’이라는 주제로 9월 27일(금)부터 12월 22일(일)까지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공군의 다양한 유물과 함께, 옛 항공기를 3D로 촬영하여 만



최용덕 장군 특별전 / 관련 기사 : 월간『공군』 2018년 10월호



3D 기법으로 날아오르게 될 부활호

든 Fly-by 영상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AF : 이번 특별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박물관장 : 전쟁기념관에서 국민들을 만난다는 점,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전시를 한다는 점이죠. 전시를 준비할 때 국민들이 우리 공군의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전시장소에 대해 얘기하자면 전시준비를 하기에는 저희 공간(공군사관학교 內 공군박물관)이 사실 제일 좋아요. 하지만 견학체계로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다보니까 일반 관람객과는 조금 멀어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공간을 벗어나 서울에서 국민들과 만난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죠.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만, 작년 같은 기간의 전쟁기념관 입장객 수를 분석해보면 약 50만 명 정도였거든요. 공군박물관 한 해 관람객이 약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니까, 거의 20년 동안 전시하는 만큼의 관람객들이 다녀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전시는 70주년 특별전이라고 해서 꼭 메모리얼적 기능이나 오래된 유물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우리 공군의 역사가 이렇구나.', '저런 역사 속에서 오늘 날의 공군이 있구나.' 이런 걸 알고 갈 수 있게 꾸미고 있습니다.

AF : 구체적인 전시 구성도 정해져 있나요?

문신영 주무관 : 공군 창군 이전 시기인 항공독립운동시기부터 공군 창군, 6·25전쟁, 공군의 발전과정, 오늘날의 공군, 우주로 비상하는 미래공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공군 창군은 1949년이지만 항공독립운동의 이야기도 공군의 태동기로써 함께 다룹니다. 그 당시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항공인들의 노력은 오늘날 공군의 중요한 정신적 가치이며 토대이기 때문이죠.

공군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영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6·25전쟁 중에 전쟁고아들을 수송한 이야기를 다룬 '배틀힐', 광복 이후 제작되었으며 이영무 등이 조종하는 L-4가 등장하는 '안창남 비행사' 그리고 공군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빨간마후라'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윌로우스 비행학교에서 사용

한 스탠다드 J-1을 비롯한 여러 모형항공기가 전시되며, 주요항공기들은 3D Fly-by 영상으로 구현됩니다. 이 외에도 관람객이 즐길만한 다양한 체험거리를 고심하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AF : '박물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흔히 녹슨 유물이나, 빛이 바랜 종이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번에는 현재, 미래 등도 계속 강조를 하시고, 3D영상도 상영을 하신다고 해서 새롭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기획을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박물관장 : 그 얘기에 앞서서 현재 공군박물관이 가진 한계랄까,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군의 역사는 70년인데 그 시간동안 유물 수집이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작년이 스페이스챌린지 40주년이었잖아요. 그럼 스페이스챌린지에 대한 전시를 한다고 할 때 당시 결재 공문이나 보존이 되어 있어서 확인이 되지만, 막상 그때 날렸던 모형항공기, 행사에 사용되었던 이벤트 물품, 기념품 이런 것들이 같이 보존되어 있어야 재미있게 구성이 되거든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전시를 기획하는 입장에서선 무척 아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 공군이 잘 가지고 있는 유물도 있어요. 바로 항공기들이죠. 국가등록 문화재도 4대나 있고, 대부분의 공군 군사재 항공기도 저희 야외 전시장에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한계를 어떻게 메꿀까 고민을 하면서도 이 항공기들을 직접 실내에 전시할 수는 없고 해서 '이 항공기들을 날려보자.' 생각했어요. 평소 항공기들인데 땅에 전시되어 비 맞고 있고 그런 게 안타까웠는데, 과거 영상에 보면 멋지게 날아다니던 항공기들이거든요. 근데 그 영상들은 다 흑백이고 항공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아나운서 멘트로만 저 항공기가 뭐다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는 그 항공기들이 크게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연출하려고 해요. 50년, 60년 전에 날던 항공기들이 우리 머리 위에서 편대비행을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최신기종과도 함께 날아가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3D 작업을



영화 '안창남 비행사'의 한 장면



6·25 전쟁 중 북한 온정리 비행장에서 한국공군이 사용한 UN기. 당시 계양을 담당했던 장병이 1·4 후퇴 이후로 개인소장하고 있다가 기증하였다.



공사 1기 첫 출격 기념 태극기. 사관학교 1기 선배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며 2기 생도들이 문구를 적어 어깨에 매어 준 태극기. 선배의 비행무운을 빌었던 후배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1999년 6월 10일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공사 1기 천영성 장군이 기증하였다.



빛이 바래 분홍색이 된 1950년대의 빨간마후라. 빨간마후라를 6·25전쟁 유물과 함께 전시할 것인지 영화 '빨간마후라'와 함께 전시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전시기획자의 몫이다.

진행하고 있어요. 짧은 영상입니다만 관람객 여러분들은 역대 주요 항공기들을 비행하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될 겁니다.

AF : 여러모로 멀티미디어가 함께하는 전시가 될 거 같습니다. 특별전의 주요 타깃은 누구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박물관장 : 청소년이죠. 의외로 관람객을 맞이해보면, 청소년들이 나중에 공군에 오겠다는 꿈을 가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밀리터리마니아들, 그런 분들이 많이 기대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뭐래도 창군 70주년이나 공군 원로분들, 그리고 공군 예비역들이 자신의 과거와 추억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AF : 전시 준비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박물관장 : 유물에는 원본만이 갖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공군은 단 한 점의 태동기 유물 원본도 소장하고 있지 않아요. 의외죠. 월로우스 비행학교 사진들은 다 남캘리포니아대학교 도서관에 아카이빙 되어있는 거 다운 받아서 보는 거고요. 최용덕 장군의 경우 창군 이후의 사진이나 기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전의 독립운동 시기 자료는 대부분 일본 외무성이나 대만 국사관 보유자료예요. 그 '원본의 힘'이라는 게 곧 박물관의 힘인데, 유물이 없으니 패널 전시만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낼 때는 그 이미지만 있으면 되지만, 전시를 할 때는 유물을 가져다놓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동기를 이야기 할 때 전시할 수 있는 원본에 대해 고민을 했어요.

저희가 노백린 장군 손자분하고 계속 교류를 해왔거든요. 이번 원본 전시를 위해서 노백린 장군이 받으신 건국 공로훈장을 대여할 수 있겠냐 요청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월로우스 관련 사진들을 패널로 전시하면서도, 노백린 장군이 받으신 훈장 하나를 진품으로 전시해두면 전시의 느낌이 충만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전시되는 안창남 비행기(記)는 20년대에 나왔던 책인데요. 안창남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책이에요. 작년에 박물관으로 강연을 하러 오셨을 때 대여를 요청 드렸습니다. 전시 기간동안 많은 국민들이 태동기 공군의 모습, 이 시기 안창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다고요. 이런 식으로 협조를 받으며 어려움을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AF : 실제로 전시되는 유물 중 몇 가지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문신영 주무관 : 노백린 장군이 받으신 건국공로훈장, 안창남 비행사가 활동하던 당시 받았던 관심의 수준을 가늠하게 해주는 안창남 비행기, 안창남 비행사가 고국방문비행 시 뿌렸던 선전지, 6·25 전쟁 시 북한 온정리 비행장에 계양되었던 UN기와 태극기, 공사 1기 첫 출격을 기념하여 2기가 선물했던 태극기, 그리고 F-86 항공기를 도입할 때 주고 받았던 정부서신, 월남전에 사용되었던 복장이나 깃발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을 모르는 분들도 친숙하게 떠올리실만한 조종장구, 생환장구 등도 함께 전시할 계획입니다.

AF : 설명해주시는 걸 듣다보니 '창군 70주년 특별전'이지만 그 이전의 시기, 즉 태동기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신다는 느낌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공군의 태

동기는 어떤 식으로 조명되나요?

박물관장 : 우리 공군이 1949년 10월 1일에 창군된 건 맞지만, 그 창군이라는 것이 그날 갑자기 시작된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게 가능했던 건 항공에 종사하고 있던 누군가, 그 이전에 공군을 바라던 우리

국민들 누군가가 공군을 향한 흐름을 읽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194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창군 70주년을 바라보기에는 우리 역사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준비해왔던 과정들, 항공사, 독립운동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젠 이번 전시에서만만이 아닙니다. 작년에 최용덕 특별전을 준비할 때도 절반은 공군 창군 이전 시기에 할애했거든요. 그런데 그 창군 이전 시기에 대한 반향이 훨씬 컸어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세월이지만, 관람객들이 마치 그때에 다녀온 것처럼 공군 창군에 있어서 최용덕 장군의 역할이 어땠는지를 느끼게 해줬던 거 같아요.

AF : '관람객들이 이것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문신영 주무관 : 약간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이 전시를 보면서 '우리 공군이 하늘을 잘 지키고 있구나.'하는 안정감을 얻고 가신다면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우리 공군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고 공군의 미래는 이렇게 나아가니까 국민들이 공군을 믿고 일상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 그럴 수 있다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도 예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 공군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주는 거죠.

AF : 이번 특별전을 보시고 유물 기증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속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중요한 유물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시에는 그런 중요성을 알기 어려웠을 거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물건을 가지고도 유물인줄 몰라서 기증을 못하시는 분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공군인들이 미래에 유물이 될 물건들을 잘 보존하고, 또 지금 갖고 있는 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물관장 : 제일 중요한 건 유물에 담긴 스토리입니다. 며칠 전에도 출장을 갔다가 어떤 분이 수집품을 보여주시면서 '전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치만 전시를 하기에는 스토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무조건 옛날 물건이라고 해서 앨범 펼쳐놓듯이 전시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스페

흑백사진 한 장, 메모 한 줄의 기억속에 공군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군박물관에서는 2019년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당신의 기억, 공군의 역사를 찾고 있습니다.



수집대상

-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
- 메모, 편지, 수첩, 일기, 일지, 수첩록, 문서 등
- 신문, 도서, 포스터, 화보 등
- 문구, 교과서, 시험지, 노트, 성적표, 상장, 음반 등
- 설계도, 공구, TO, 장비 등
- 항공기도입, 부대창설관련 기념품, 그릇, 포스터 등
- 공군생활자료, 급여명세서, 입관반지, 스포츠용품 등
- 헬멧, 번글라스, 마후라, 마크, 전투복, 조종복, 침바복 등
- 기타 알리고 싶은 공군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자료

공군사관학교 공군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 청주시 552구 남영면 서세로 335-1호

전화 : (043)290-6075 팩스 : (043)290-6188

이스라엘인을 예로 들었지만 매년 모든 물품을 수집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유물에 담긴 스토리, 역사 그런 걸 살펴야하죠. 물론 바로 전시가 어려운 물품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박물관이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먼 미래에, 공군 140주년에 꺼내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유물을 기증하시는 분들은 모든 기증품이 다 전시가 되리라고 기대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전시를 한다는 건 유물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공간적 제한, 스토리의 제한도 있죠. 기증하신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전시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런 걸 다 못 해드리니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군의 역사 자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에서 일단 의미를 가지고, 많은 기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F : 마지막으로 『공군』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박물관장 : 저희가 '전화질'을 온 부서에 했어요. 없는 게 많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달라. 빌려달라.' 참 귀찮게 했는데 잘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창군 70주년 특별전이란 게 결국 우리 잔치잖아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군의 잔치. 그러니까 전시에 오셔서 '오늘은 내가 주인공'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시고,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AF**

공군 창군 70주년 특별기획전 관람 안내

- 전시장소 :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 전시기간 : 9월 27일(금) ~ 12월 22일(일) (매주 월요일 휴관)
- 관람시간 : 09:30 ~ 18:00
- 관람료 : 무료
- 문의사항 : (043)290-6075(공군박물관)
(02)709-3139(전쟁기념관)

공군박물관 관람/전학신청 안내

- 관람시간 : 09:00~16:30
- 휴관 : 매주 수요일, 설/추석 연휴기간
- 전학신청 :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
[학교 전학신청] 배너 클릭 후 신청(예약 필수)
- 전학문의 : (043)290-6118 (공사 공보정충실)

70주년을 기념하는 방법들

우표부터 동상까지, 공군의 다양한 기념 방법

공군의 70주년 기념행사는 ‘특별전’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은 새로운 옥외광고를 건물 전면에 달았다. 9월에는 기념우표가 발행되고, 창군 발상지 표지동판이 설치된다. 월간 『공군』 E-Book 자료관도 새로 문을 연다. 공군의 캐릭터 ‘하늘이와 푸르매’도 리뉴얼되며, 10월에는 70주년 기념식, ADEX, 사천에어쇼도 기다리고 있다. 11월에는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도 예정되어 있다. 공군이 70주년을 기리는 다양한 방법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월간 『공군』이 소개하는 9월의 70주년 기념사업을 살펴보고 공군 70주년을 함께 기념해보자.

공군회관 옥외광고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물

공군은 창군 70주년을 홍보하고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 새로운 옥외광고를 게시했다. 이번 옥외광고는 F-35, F-15K, KF-16 등 공군의 주요 전력과 태극기, 창군 70주년 엠블럼, 푸른 하늘 이미지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밖에도 전대급 이상 22개 부대 110여 대 버스에 홍보이미지를 랩핑하고, 포스터·현수막·배너 등을 제작해 공군 창군 70주년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공군 창군 70주년 엠블럼



공군회관의 새로운 옥외광고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

기념우표 발행

70년간 성장 발전해온 공군의 이미지가 담긴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가 발행된다. 우표에는 푸른 하늘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 중인 조종사, 하늘로 비상하는 F-35A 전투기 그리고 태극무늬를 그리고 있는 블랙이글스의 모습이 담겨있다. 우표의 조종사는 조국 영공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군인 전체의 임무 수행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F-35A는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최첨단 항공전자장비를 갖춘 전투기로서 ‘최강의 정예공군’에 어울리는 전쟁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배경에서 비행 중인 블랙이글스는 환상적인 팀워크로 우리 조종사들의 탁월한 기량과 도전 정신 그리고 국산항공기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특수비행팀이다. 블랙이글스는 태극기동으로 대한민국을 상징하고 있다. 우표 주변에는 ‘하늘을 나는 주유소’, KC-330 시그너스 공중급유기와 공군 의복 캐릭터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 전투기의 작전시간과 반경을 획기적으로 연장해줄 KC-330은 올해 2월 1호기가 전력화됨으로써 7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고 있는 공군의 위상을 알렸다. 한편, 공군 의복 캐릭터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공군인들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 캐릭터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브랜딩 부문 분상을 수상하여 그

자체로도 공군의 전문성을 세계에 알린 바 있다.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는 ‘공군 창군 제20주년 기념우표’ 이후 50년 만에 발행되는 창군 기념우표이다. 또한 ‘2008년 건군 60주년 기념우표’ 이후 11년 만에 발행되는 軍 기념우표이기도 하며, 특히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우표는 드물기 때문에 높은 소장가치로 수집의 묘미를 더했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장 강성구 대령은 “이번에 발행하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거 공군인들의 헌신을 기리고, 그 헌신 덕분에 눈부시게 발전한 공군의 현재와 항공우주군으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릴 좋은 기회”라고 우표 발행의 소감을 밝혔다. 이어 “역사기록물로서도 가치가 큰 이 기념우표가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기념하는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는 창군 기념일인 10월 1일을 열흘 앞둔 9월 20일 발행 예정이다. 총 발행수량은 약 68만 장(4만 3천 시트)이며, 전국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창군 발상지 표지동판 설치

최용덕, 이영무, 장덕창, 김정렬, 박범집, 이근석, 김영환 등 대한민국 공군 탄생에 기여한 7인이 모여 공군 창군을 논의하고 결의했던 장소에 표지동판이 설치된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 2가에 위치한 이곳은 당시 행정구역상 돈암동으로 초대 공군참모총장인 김정렬 장군의 자택이 있었던 자리이다. 동판은 가로 세로 45cm 크기로 집터 근처의 인도 위에 설치될 예정이다.

육군과 해군이 1948년에 창설되었던 반면 공군은 창설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많은 항공인들은 우리의 항공기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국방차관이었던 최용덕 장군을 비롯해 공군 창설을 주도했던 7명은 1946년 12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김정렬 장군의 자택에 모여 공군 창설을 논의했다.

6·25 전쟁 100회 출격 첫 조종사이자 11대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김두만 장군(92세)은 자신의 회고록격인 『항공정비록』에서 “더 늦기 전에 김정렬 장군의 돈암동 자택 터를 찾아낸 후, 그곳에 ‘이곳이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발상지입니다!’라는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죽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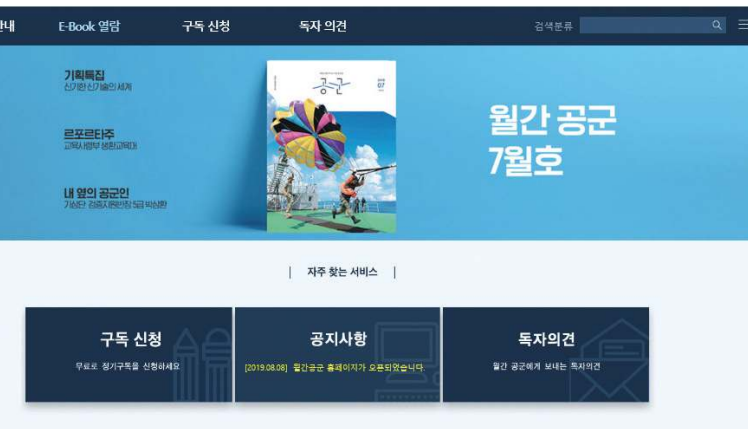
이에 공군은 김정렬 장군의 자택이 비록 개인 주택이지만 공군 창군의 주역들이 모여 항공력 건설 방안을 논의하고 공군 창군을 결의했다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군 창군이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은 선배들의 창군정신을 기리는 장소임을 알리기 위해 기념동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자택은 남아있지 않고 주변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터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공군은 『증언록 1집』(전사편찬위원회, 1965년), 『항공의 경종』(김정렬, 1993년), 『대한민국 공군의 이름으로』(이강화, 2014년), 『항공정비록』(김두만 장군 평전) (김덕수, 2017년) 등의 자료 그리고 김정렬 장군의 차남인 김정기 씨와의 인터뷰, 지적도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성북구청의 협조

를 받아 집터 위치를 확인하였다.

표지동판에는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군에 크게 기여한 주역 7명이 공군 창군을 결의했던 장소'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동판 설치에 맞춰서 관계자들이 모여 간소한 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성북구에서 '공군 창군 발상지 표지동판'을 만나게 된다면, 공군이 탄생하기까지 '공군 창군 7인'을 비롯하여 많은 항공인·국민의 노력과 염원이 있었음을 되새겨보자.

공군지 인터넷 E-Book 자료관 첫 화면



공군지 인터넷 E-Book 자료관 개관

공군의 기관지 『공군』도 창군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공군지 인터넷 E-Book 자료관'을 개관한다. 『공군』은 1950년 창간호부터 공군의 오랜 역사를 꾸준히 기록해온 만큼, 이번 E-Book 자료관의 개관은 공군과 공군의 역사에 대해 알고자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기존에도 『공군』은 '월간 『공군』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PDF 다운로드를 제공했지만, 기능이 제한적이고 외부검색이 불가능해 이용에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E-Book 자료관은 모든 자료를 다운로드 없이 PC와 스마트폰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으며, 본문검색도 가능하여 원하는 자료를 언제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지사항, 신규 구독신청, 독자의견 보내기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국민과 『공군』 편집실의 소통도 더 편리해졌다.



단, 일부기능은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자료관에는 기존 공군지 전권은 물론, 한글화를 거쳐 재편집된 『공군』 창간호와 『코메트』 1~44호도 연말까지 탑재될 예정이다. 옛 공군지에 관심이 있었으나 세로쓰기와 한자 등의 장벽으로 읽기 어려움을 느꼈던 독자들이라면, 이번 연말까지 기다려보자. 올해 한글화되지 않은 공군지는

내년도에 이어서 작업할 예정이다.

『공군』 인터넷 E-Book 자료관의 주소는 기존 아카이브와 동일한 'www.afzine.co.kr'이다. 관심있는 독자들은 지금 바로 PC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즐거찾기' 해두자. 아무런 설치나 다운로드 없이 PC와 스마트폰으로 바로 보는 공군지라니, 월간 『공군』 편집실도 감개무량하다.



리뉴얼 하늘이 후보들



하늘이와 푸르매

하늘이의 변신

공군 창군 50주년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공군의 캐릭터 하늘이가 20년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예정이다. 그동안 하늘이는 다양한 공군 행사에서 국민들과 만나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공군은 하늘이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랑 받고 다양한 홍보활동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리뉴얼을 진행중이다. 공군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만큼 하늘이의 변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모습의 하늘이는 9월말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소식은 월간 『공군』 10월호에서도 다룰 계획이다. 리뉴얼 하늘이 후보들을 보며 새로운 하늘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대해보자. 



친근한 이미지로 아이들에게 특히 사랑받는 하늘이

공군지 E-Book 자료관 개관 기념 이벤트!

공군지 E-Book 자료관 이용후기를 '독자의견'에 남겨주시거나 afzine@korea.kr로 보내주세요.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 7분을 뽑아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기념우표와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용후기를 보내주실 때에는 회신 받을 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메일주소가 없거나 기간 내 응답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용덕 장군의 항적(航跡)을 따라서

공군 창군 7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취재기

국공내전으로 혼란스러웠던 1926년 중국, 철옹성 같던 시안성벽 너머 적의 보루에 전투기 한 대가 폭탄을 쏟아 붓는다. 하지만 맹렬한 기세도 잠시, 전투기는 갑자기 화염에 휩싸인다. 착륙과정에서 미처 투하하지 못한 폭탄이 갑자기 터진 것이다. 불구덩이로 변한 전투기 속에서 조종사들은 생사를 넘나들다 다행히도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극적인 상황, 중국에서 비행사로 활약한 한국인 최용덕의 이야기다.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떠나, 낯선 땅 중국에서 비행사의 삶을 선택했던 한 청년, 그는 왜 하늘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것일까? 우리는 그의 삶이 궁금해졌다. 다큐멘터리 제작기간 7개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우리는 그가 남긴 삶의 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2019년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한 해다. 3.1운동과 함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공군이 창설 70주년을 맞았다. 그 중심에 늘 최용덕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규군이었던 <광복군> 총사령부의 고위참모를 지내고,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주역이 된 인물. 하지만 그를 대변하는 화려한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국내에서 그의 자취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생가도 보존되어 있지 않고, 그의 생전 모습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직계 후손들조차 만나기 어려운 상태였다. 제작진은 최용덕 장군의 자취를 찾아 공군사관학교 강창부, 김기동 교수 그리고 공군 김연중 대위와 함께 중국으로 향했다. 난위안 항공학교로부터 바오딩 군관학교, 항저우 중앙항공학교까지, 비행사를 꿈꾼 청년들의 요람이었던 이곳에서 최용덕의 활약상을 만날



①

▲ 중국본토부터 대만까지 최용덕 장군의 흔적을 찾아 나선 KBS 다큐멘터리 제작진과 공군. (윗줄 좌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기동 교수, 김한석 PD, 강창부 교수, 김연중 대위.

②

▲ 최용덕 장군이 전투에서 실제로 조종했던 avro 504k(오른쪽), 그 옆으로 최성우 촬영감독이 타이거모스 항공기에 탑승해 촬영 중이다.



▲ 장제스 등을 배출한 바오딩 군관학교. 1923년 폐교한 뒤 터만 남은 이곳에서 최용덕의 재학 시절 모습을 재연했다. 사진은 김연중 대위가 당시 조종사 복장을 입고 열연하는 모습이다.

수 있었다. 당시 하늘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수많은 청년들이 비행사를 꿈꿨다. 비행사는 그야말로 선망의 직업이었다. 하지만 최용덕에게 비행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비단 개인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1924년 우페이푸(佩孚) 군벌 소속으로 비행사가 된 최용덕은 이후 장제스 휘하로 들어가 실력을 인정받으며 입지를 다져 간다. 장제스가 공군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항저우 중앙항공학교에서는 한국인 비행사로는 유일하게 교관에 임명될 정도였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에 최용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었던 광복군에 몸담는다. 중일전쟁 참전 경험을 통해 제국권의 중요성을 절감했던 그는, 광복군에서 공군을 창설할 구상을 갖는다.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던 중,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인 고문인 소육린(邵毓麟)의 글에서 눈에 띄는 한 구절을 발견했다.

“독립운동가들이 중국군이나 군벌소속 군인이 되는 것은 언젠가 중국이 일본과 싸울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당시 중국에서 활약한 한인비행사들은 독립운동과 비행사가 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다.”

- 소육린의 ‘사한면억록(使韓面憶錄)’ 中

청년 최용덕에게 하늘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조국의 독립을 이뤄줄 유일한 희망이 그곳에 있었다. 제작진은 뉴질랜드로 향했다. 뉴질랜드 웰링턴의 한 비행장,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의 avro 504k(1925년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최용덕이 초기 비행사 시절 자주 조종했던 비행기와 같은 기종이다. 좁은 전투기 조종석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던 청년 비행사 최용덕의 모습을 담아내본다.

당대 전투기는 ‘하늘을 나는 라이터’라 불렸다고 한다. 쉽게 불에 타버릴 만큼 취약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용덕에게 언제 닥칠지도 모를 불운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건디기 어려웠던 건 쓰러져가는 조국에 대한 부채의식 아니었을까. 조국 독립을 향한 최용덕의 고뇌와 집념에서 우리의 평화로운 현재를 떠올려본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찾고자 했던 나라인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왔던 것들에 대해 잊고 있던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항공독립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 공군 창군에 이르기까지 최용덕의 생애를 조명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공군 창설 70주년인 2019년 10월 1일 KBS를 통해 방송된다. **AF**



▲ KBS 박준균 특수영상감독. 시안전투의 추락장면을 CG로 구현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르포르타주
위협을 잠재우는 사람들



글
대위 박지완



사진
일병 김민수(1비)



취재지원
중위(진) 최희재(1비)

16



제1전투비행단 헌병대대 특수임무반원들. 왼쪽부터 하사 이재진, 병장 이정준, 중사 김준호, 하사 김두현



제1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특수임무반 위협을 잠재우는 사람들



‘헌병’의 역할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오르는 것은 군사경찰로서의 모습일 수도 있으나, 이는 헌병 역할의 전부가 아니다. 공군의 경우, 군내 범죄 수사 및 군기 단속의 임무에 더해 부대 경비 및 유사시 기동타격임무를 수행하고, 각종 테러상황에 대비해 특수임무반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수임무반은 각 부대에서 테러예방 및 대테러 초동조치, 강력범 체포 및 중요인사 경호경비 임무를 수행한다. 전시에는 부대의 주변에서 접근하는 적을 수색하기 위한 정찰임무와 적에 대한 직접 차단·격멸을 위한 타격 임무도 맡는다. 특히, 민간공항과 함께 있는 부대의 경우 공항 지역의 테러 저지 임무까지 담당한다. 이번 호에서는 제1전투비행단 헌병대대 특수임무반을 만나본다.



특수임무반은 맡고 있는 임무가 막중한 만큼,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테러리스트가 건물 내부로 숨어들 경우, 효과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레펠 침투도 해야 한다. 특수임무반은 매월 부대 내 자체 훈련시설 또는 고층건물을 가정한 외부 훈련시설에서 정기적으로 레펠 훈련을 실시하고, 반기 1회씩 공군 제6탐색구조전대의 도움으로 헬기 레펠 훈련도 실시한다. 5층 높이의 건물 옥상에서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아찔했는데, 로프를 매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벽면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는 이들의 능력이 놀라웠다.

1초? 아니 0.1초의 찰나에 적을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의 공군 장병들은 정해진 거리에서 표적을 맞히는 방식으로 사격훈련을 하지만, 특수임무반은 적을 어디에서 어떻게 마주칠지 예측이 어려운 환경을 대비하여 사격훈련도 대테러에 특화된 형태로 실시한다. 소총과 권총을 모두 자유자재로 사격할 수 있도록 전후좌우 이동사격이나, 더블 탭(Double Tap)¹⁾ 등의 다양한 과목을 훈련한다. 공군은 헌병단 주관 대테러전술경연대회를 통해 이러한 훈련성과를 검증하며, 각 부대 특수임무반의 기량 향상과 점검의 기회를 제공한다.

1) 두 발 연달아 사격하는 사격술. 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권총 사격 시에 주로 쓰인다.



※ 촬영은 안전조치 후 실시하였음.

①	②
③	④

- ① 5층 높이의 건물에서 레펠 훈련을 하는 장병들. 이들에게 벽면이 마치 땅인 것처럼 자유롭다.
- ② 창문으로 침투하기 위해 자세를 변형해 하강하고 있는 장병들. 한 손에 권총을 들고 있어 레펠은 한 손으로 유지해야 해 숙련이 필요하다.
- ③ 부대 내 실내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는 장병들. 사격훈련을 할 때에도 안전성과 실전성을 위해 장비를 모두 착용한다.
- ④ 사격훈련에 나선 한 장병의 화기가 불을 뿜고 있다.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적과 육탄전을 벌이게 될 경우를 가정해 특공무술 훈련도 실시한다. 근접전에서 상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해 무장해제시키거나 무력화하기 위함이다. 실전적인 동작들을 모은 특공무술을 숙달하고, 총과 칼 등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호신술도 숙달한다. 실제 상황에서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장병들이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진지했다.

이들에게 체력단련도 임무다. 건강을 위해서나 멋진 몸매를 위해서가 아닌, 더 나은 임무수행능력과 위기에서 벗어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특수임무반에 처음 온 장병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체력단련이라고 했다. 레펠을 지탱하는 힘,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 적을 제압하는 완력 등 모두 강한 신체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평행봉 등 근력운동과 심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각종 유산소운동 등을 통해 신체능력을 모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① 특공무술을 숙달하고 있는 장병들. 대테러복을 착용했음에도 몸이 유연하다.

② 홍기로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호신술을 훈련 중인 김준호 중사(좌)

③ 부대 체력단련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한 장병. 화난 등근육이 아찔하다.

④ 특수임무반원들은 '체력단련'이 곧 임무라며 누구 하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①

① 이정준 병장이 특수임무헌병의 임무를 소개하고 있다. 뒤에 걸린 태극기가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듯 하다.

②

② 김준호 중사는 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 각종 훈련과 체력단련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팀원들에게 강한 훈련을 요구하려면 술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이다.

1비 특수임무반 특수임무조장 김준호 중사는 특수임무반장과 더불어 특수임무반을 이끌어가는 리더다. 그는 태권도 공인 5단으로 입대 전 전국 태권도대회에서 다수 입상했고, 군에서도 참모총장기 태권도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처음에는 원해서 특수임무반에 온 것은 아니었어요. 저의 태권도 선수 경력을 보시곤 당시 대대장님이 추천해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제 천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준 병장은 특수임무헌병으로 복무하고 있다. 공군에 입대해 헌병 특기를 부여받고, 어떤 보직으로 가야 할까 고민하던 중 ‘특수임무반’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다. 소방관이 꿈인 그는 강인한 육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특수임무반의 모습이 본인이 원하는 소방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일병 시절,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한 뒤 정리하자마자 생활관에 다급한 목소리로 방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실제상황이 벌어졌으며, 긴급출동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특수임무반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많이 놀랐는데, 선임들은 낮이 나간 저를 챙기면서도 침착하고 빠르게 장비를 갖춘 뒤 3분 만에 출동준비를 마쳤습니다. 다행히도 상황은 별 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병장이 된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지금은 특수임무반의 최선임병으로 그 때의 제 선임들처럼 멋진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라며, “가끔씩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상황이 생기거나, 30분 대기조로서 이동 및 행동이 제약될 때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부대를 지키는 임무와 책임과 자부심을 느끼며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특수임무반에서 활용하고 있는 총기와 장비들. K-1 소총, K-5 권총, K-14 저격총 그리고 스코프, 플레이트 등 보조 장비들

특수임무반은 다양한 상황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도록 상황조치훈련을 실시하는데, 건물침투와 인질구출이 주를 이룬다. 상황조치훈련을 실시하면 앞서 소개한 훈련내용(레펠, 사격, 특공무술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점검할 수 있다. 이들은 임무에 투입될 때 보통 5인 1조로 투입된다. 임무는 조장(리더), 공격조, 엄호조, 저격조로 나뉜다. 특수임무반이 투입되는 공간은 보통 건물 내부나 시가지인데, 대규모 인원이 투입될 경우 오히려 신속한 기동이 어렵고 임무현장에 진입할 때 사선상에 팀원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는 대테러복(일명 '흑복')은 아마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사흘간 특수임무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뜨거운 태양아래 흘리는 땀을 보고 그제야 깨달았다. 이들의 임무복장이 멋진 이유는 단순히 옷과 장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이 옷과 함께 입는 책임감과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리라는 다짐 때문이라는 것을. 위협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잠재우는 특수임무반. 군인을 군인답게 하는, 어떤 장식보다도 멋진 책임감과 다짐이 그들의 온몸에서 빛났다. **AF**



①

① 테러(훈련상황)가 발생한 건물에 침투하고 있는 특수임무반

②

② 서로를 엄호하며 공간을 하나씩 확보해가고 있는 특수임무반



1배 특수임무반원들. 왼쪽부터 병장 이정준, 병장 윤승화, 상병 최유승(아래), 하사 이재진, 중위 엄종하, 중사 김준호(아래), 하사 김두현, 상병 신현제(아래)



제8화 대한민국 공군 최초 여자항공교육대 1기생
현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 김경오 여사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의 이름으로 보내는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을 만나다.



대한민국 공군 최초 여자항공교육대 1기생, 현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 김경오 여사



제1기 여자항공대원 입대식 장면(1949.2.15.)



대위시절의 김경오 여사

**“지난날 이야기가 생생한 것은 지금도 이 분야에만 살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지금까지 항공의 울타리에 살고 있습니다.”**

- 여자항공대 1기 김경오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

대한민국 공군 창군으로부터 8개월 전, 여성들의 항공분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자항공교육대가 창설되었다. 1949년 2월 15일, 조종사의 꿈을 안고 온 15명의 제1기 여자항공교육대 입대식이 거행되었다. 안타깝게도 교육생들 절반은 복무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개인사유¹⁾로 조기전역을 선택하였고, 6.25 전쟁 발발과 함께 귀가 조치되어 전부 흩어졌다. 이후 최종적으로 단 한 명만이 비행교육을 받고 단독비행(L-19형 비행기)에 성공 후 대위로 전역하였는데, 그녀가 바로 김경오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이다. 그녀는 전역 후 이승만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민간항공 기술교육을 받고 돌아와 대한민국 항공의 후예를 양성하라.”는 제안을 받아 길퍼드대 항공운항과에 입학한다. 유학을 마친 후에는 항공사상의 보급과 여성들의 항공계 진출을 위해 국내 항공단체를 이끌었고, 현재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로서 국내외 민간항공과 여성운동 분야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있다.

항공에 70년 인생을 바친 그녀는 “공군이 나의 전체이고 애인이며, 나에게는 공군 밖에 없다.”며 공군에 대해 여전히 애뜻한 심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공군 창군기의 마지막 홍일점, 김경오 총재의 생생한 항공이야기를 들어보았다.

70년 인생의 전부, 항공의 매력

항공의 매력은 물론 ‘하늘을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꺾어보지 않고서는 항공의 매력에 대해 모르지만, 저는 몸소 접해봤기 때문에 답할 수 있어요. 옛 그제 다른 매체 인터뷰에서도 ‘다시 태어난다면 무슨 직업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에 당연히 ‘조종사’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역 후에도 대통령께서 조종을 지속하라고 유학을 보내셨고, 운명적으로 이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이외의 제 삶이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총 15명의 제1기 여자항공교육대생들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신체적인 질병, 결혼, 대학진학 등의 사유로 조기 전역을 했고, 1950년 6.25 전쟁 발발 전날인 6월 24일에는 15명의 절반 정도인 8명만이 남아있었다.

유학생들의 좌절 그리고 성공



▲ 여의도 비행장에서 미국에서 가지고 온 경비행기로 시범 비행 당시(1963.10.31.)

당시 시급이 50전이던 때였는데, 미국에서 비행기 1시간을 타기 위해서는 20불이 필요했어요. 저는 훈련비를 벌기 위해 풀도 뜯어 보고 애도 봐주고 손이 엉망이 될 지경까지 정신없이 일했어요. 한 기숙사에 100명 정도 살았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 그들의 빨래, 설거지 등 잡일을 대신해 기숙사비용을 삭감하며 아동바등 돈을 벌었어요.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착륙 중에 수백 명이 타고 있는 큰 여객기와 충돌할 뻔했답니다. 제대로 못 먹고 일과 비행을 동시에 하니 영양실조에 걸려 비행 도중 정신을 잠깐 놓친 겁니다. 병원에서 극도의 영양실조 진단을 받았고 2달 동안 비행을 못했어요. 그때 좌절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말이 그렇지, 진리다 뭐다해도 당장 서러운 건 배고픔이었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소위 말하는 한창 예쁜 나이에 결혼하지는 사람도 있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버티며, '대통령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 기술을 익혀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애국을 해야 한다.'며 늘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저의 다짐에 하늘이 감동하여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제가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당시 한국에서 온 여성 조종사에 대해 언론들은 뜨거운 관심을 가진 거죠. 라이프매거진, 타임지 등 유명언론에 소개되어 공부하는 시간보다 기자회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답니다. 더불어 ABC방송사 퀴즈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전국을 돌며 전쟁 강연도 다니니 자연스레 생활용품과 기부금을 받았습시다. 어느 날 저는 인터뷰 중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자도 전쟁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비행기가 필요하다."는 포부를 말했더니 "그 비싼 비행기를 어떻게 구하겠느냐"고 되물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기사님의 손에 달려있다. 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답했더니 그 분이 감동을 하고 기사를 신문에 크게 내줬어요. 그렇게 저의 의도에 감동한 파이퍼라는 회사에서 훈련용 경비행기 한 대를 무상으로 주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그 비행기로 여의도 비행장에서 귀국비행을 했습니다. 이후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도록 항공대학에 기증했는데 저의 힘든 미국생활이 모두 씻기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공군에서 비행교육을 받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난관에 부딪혔고, 그 때마다 입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 길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군 생활은 험난한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1949년 공군사관학교 1기생들과 똑같은 트럭을 타고 입대하였고 그들과 동일한 복장과 급식을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양성평등이 중요시되지만 그때는 여자군인으로서 대우도 못 받을 뿐더러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자가 시집이나 가지, 왜 남자들도 못하는 어려운 훈련을 받냐'면서요. 심지어 참모총장께서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하라고 하셨습니다. 원통하고 분했어요. 입대 후 2년이 지나고 소위를 달았습니다. 머리 길게 땀은 꿈 많은 여학생이 비행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나라 정책에 의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나오는 날까지 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여자가 인정받기 힘든 군에서 내가 사는 길은 저 남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꿋꿋하게 버텼어요. 그 결과, 1기 교육생 15명 중 유일하게 저만 비행을 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난관



▲ 여의도 비행장 귀국 비행 / 김경오 여사(좌), 이명신 여사(여성계선각자), UN대사



여성운동 당시 (1987년)



김경오 총재 공사 방문. 공군 최초 여자사관생도(제49기)와 함께(1998)

여성운동의 선각자

1969년부터 여성운동을 시작했어요. 군 생활을 하면서 설움을 셀 수 없이 겪었기 때문에 '내가 여성운동을 해야만 항공도 발전할 수 있다'는 모토로 차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장섰죠. 1987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자리에 앉았고 한·일 여성 항공인 정기 교류, 국제 여류비행사협회 등 민간 항공 여성대표로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을 대변하며 노력하다보니 제14대 대통령 대선 후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어요. 저는 강력하게 "공군사관학교에 여자도 뽑으셔야 한다. 공약을 지키신다면, 여성들이 물표를 줄 것이다."라고 건의했죠. 현재 여성들은 정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그들이 더욱 더 진취적이고 활발한 모습을 보이며 영공방위와 양성평등에 힘써 이바지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올해 공군사관학교 여생도 모집 경쟁률이 120:1로 최고기록을 달성했다고요. 1기 입학식이 었그제 같은데, 저는 믿어요. 공군 여성 인력은 시간이 지나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 누구보다 잘해낼 것이라는 것을. 가끔씩 후배들이 편대장이 되고 중령이 되어 연락을 해오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요. 작년에 공군에서 특강할 기회가 있어 여군 후배들을 만났는데 더할 나위 없이 군 생활을 잘하고 있는걸 보니 조언이나 충고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만 따듯한 격려를 한마디하고 싶어요. "비록 현재는 힘든 군 생활이겠지만 훗날 돌이켜 보았을 때, 공군에서 보낸 시간이 큰 성장원동력이 될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특강에서 항상 "예비역 공군 대위로서 공군에 인생을 바친 것은 제 자신에게 무척이나 자랑스러운 일이고, 공군을 영원히 간직하며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해왔거든요. 그만큼 자부심이 넘쳐요.

여군 후배들에게

돌아가신 김신 장군님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그는 6대 참모총장을 역임하셨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둘째 아들이시기도 했죠. 제가 비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신 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당시 공군본부 작전국장이었던 김신 장군께서는 아침마다 참모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당시 17명 중 16명이 여성의 조종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만이 유일하게 찬성하셨습니다. 여성관이 굉장히 진보적이셨죠. 그 덕분에 저는 교육을 받고 비행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공군 인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애국정신

저의 유일한 외출복인 이 옷은 구름과 하늘을 표현합니다. 지금은 떠난 나의 절친한 친구, 디자이너 앙드레킴이 디자인했고 계절마다 질감과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20여 벌 넘게 가지고 있어요. 유니폼이라면 유니폼인 이 옷은 공적인 모든 일에 입고 앞장섰어요. 저는 아마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이 옷을 입혀달라고 할겁니다. ‘빨간 마후라’를 연상시키는 스카프를 매고,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은빛 윙(Wing)과 약장을 가슴에 차며 평생 그리고 죽어서까지 공군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거죠.

돌아가신 국회의장 신익희 씨가 저를 공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셨어요. 또한 저에게 아호(雅號)를 ‘효공’이라고 지어주셨죠. 하늘의 해가 막 지려고 할 때 하늘과 땅이 붙은 것처럼 빨갛게 황혼이 저요, 새벽 효(曉), 하늘 공(空) ‘효공’이라고 해주셨어요. 그 분이 저에게 늘 “너는 그냥 평생 하늘을 날고, 창조하며 살아야 될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인생은 늘 공(空)자가 붙어있어요. 삶의 철학의 지표는 사실 안 세웠어요. 조종사는 지표를 세울 수 없는 긴박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제 옆에 있던 전우가 복에 가서 못 돌아온 적이 허다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닌 붙어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돼요. 누구의 말을 듣지도 말고, 내가 꼭 이거해야만 행복하겠다고 느끼면 그걸 위해서 직진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뚫고 나가야 돼요. 가다보면 길이 있고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한테 당당해야 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 여성 대표로서 선진국과 공산국들과 접하면서 여자가 설친다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변치 않은 것은 늘 당당함이었어요.

삶의 지표





꿈

이렇게 말하면 웃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을 안했어야 했어요. 결혼을 안했으면 나사에 가서 반드시 우주비행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나사에서 오는 잠지들은 꼭 챙겨보고 자기 전에 제가 나사에 가서, 몇 호기를 타고, 이런저런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제가 31살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 때는 말도 안됐었죠. 당시 한국에 잠시 들어왔는데 한 분이 결혼 안 할 거냐며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신랑감이라도 한 명 구해주시고 말씀하시라고, 누군가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넉살스럽게 되물었더니, 정말 그분이 우리 남편을 소개해주셨고 그때 등 떠밀려 결혼했어요. 물론 50년 동안 남편을 사랑했고 뜨거운 결혼생활을 했죠. 작년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결혼 전에 제대로 된 연애를 못해봤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라는 것. 애인을 사랑하면 만나야 되고 만나기 전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만나고 난 후에는 헤어지기 싫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싶어요. 저의 두 번째 꿈이라면 열렬한 연애를 하는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는 마음의 여유도 없었을 뿐더러 처벌받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연애도 못해보고, 굉장한 아쉬움이예요. 가끔 제가 유튜브로 프랑스 영화를 보며 세느강에서 늙은 두 남녀가 이야기하는 장면에 아름답다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사랑하세요! 연애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백범 김구선생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애국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뭐 인간이 태어나 누구나 한 번씩 겪는 거지만, 사람에게는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자신의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체 삶 안에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속에 본인의 인생관을 철저하게 세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세운 본인의 철학은 영원히 가슴 속에 새기며 이루길 바랄 뿐입니다. AF

공군 구독자들에게



그날, 우리 하늘

항공사상과 항공일



▲ 1954년 10월 1일 제6회 항공일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좌)으로부터 표창과 훈장을 수여 받고 있는 김정렬 중장(우)

1903년 인류가 동력비행에 성공한 이후 이른바 항공선각자들은 대중들에게 ‘항공에 대한 열정’이라고 폭넓게 정의될 수 있는 ‘항공사상(airmindedness)’을 가지라고 독려했다. 일본에서 비행교육을 받은 안창남(安昌男)은 『동아일보』에 1922년 12월에 실시한 고국방문비행의 후기를 “비행사업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일방 민중 전체로의 힘이 아니면 도저히 완전한 발달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항공에 대한 국민적 자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안창남 개인은 고국방문비행을 통해 일약 민족적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산발적으로 벌어지는 이벤트만으로는 식민지 치하의 한국인들에게 체계적으로 ‘항공사상’을 보급하기 어려웠다.

군이나 관의 일방적인 주도로 항공력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은 타국에 머무르고 있는 독립운동가들도 깨닫고 있었다. 1943년 7월에 광복군의 주체인 임시정부는 최용덕(崔用德)의 건의를 수용해 공군건설위원회를 설치, 이후 공군설계위원회로 개칭하며 그 역할을 ‘공군 건설/방공(防空) 건설/일반항공사업에 관한 일체 사항’의 세 가지로 명시했다. 해방 직후에 다양한 출신의 항공인들이

모여 구성한 조선항공협회(朝鮮航空協會)와 국군항공준비대(國軍航空準備隊)는 각각 민간항공과 군 분야의 항공력 구축에 노력을 집중했다. 두 단체 모두 항공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등교육과 초등교육에 글라이더와 모형항공기 과목을 반영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1946년 미군정의 해산 조치에 따라 두 단체는 여러 군소 단체로 분열되었으나 구성원들의 활동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았다. 경성공업전문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학생항공연맹은 1932년 윤창현(尹昌鉉)의 고국방문비행을 기리기 위해 5월 18일을 ‘(학생)항공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국내의 항공인들은 광복군의 주요 인물이었던 최용덕의 귀국을 계기로 그를 구심점으로 삼아 다시 통합단체로 한국항공건설협회(韓國航空建設協會)를 창설했다. 한국항공건설협회는 미군정과의 협상을 통해 항공부대 창설을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대중에게 ‘항공사상’을 보급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했다. 춘천지부와 대전지부가 조직되었고, 학생항공연맹은 지속적으로 학생항공의 날 행사를 이어나가

며 동계 방학 때 항공강좌를 열기도 하였다. 1954년에 공군본부에서 펴낸 『공군발전약사』는 한국항공건설협회가 “항공사상 보급 및 항공계 발달을 위해 진력”한 노력을 비중 있게 다룬다.

1947년 하반기에는 미군정도 국군 창설의 일환으로 항공부대 창설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1948년 5월 5일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으며, 9월 4일에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받아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를 갖춘 항공부대가 되었다. 9월 15일에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인들만이 조종하는 비행기 10대가 편대비행으로 서울 상공을 날아서 최초의 시위비행(示威飛行)을 실시했다. 독립된 군종으로서의 공군 창설에 앞장섰던 최용덕 국방차관은 지상에서 편대비행을 지켜보고 “내 나라 강토 안에서 태극기를 그린 비행기로 조국의 하늘을 마음껏 날았으면 하던 염원이 오늘 성취하고 보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술회했다.

이 역사적인 비행을 “영구히 거족적으로 기념하고 온 국민의 항공사상을 앙양시키기 위하여” 9월 15일은 항공일로 지정되었다. 1949년 9월 15일 제1회 항공일 기념행사는 여의도기지에서 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 요인을 포함하여 수만 명의 군중이 결집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행사는 공훈자에 대한 포상, 공중분열, 특수비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류비행사 이정희(李貞喜)는 비행 후 “눈물겨운 목소리로” 중앙방송국을 통해 여류비행사의 감격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2,500ft에서 이루어진 낙하산 강하를 본 관중들은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1949년 10월 1일에 마침내 공군이 육군에서 독립되어 창설되었다. 같은 시기 시작된 ‘애국기 헌납운동’은 강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목표금액을 초과한 3억 5천만 원을 모금해서 ‘건국호’로 명명된 캐나다의 T-6 고등훈련기 10대를 구매하는데 사용되었다. 1950년 5월 14일에 실시된 ‘애국 항공기 명명식’은 “우리 동포들의 애국지성의 헌금으로 구입”한 항공기를 위해 “구입 헌금을 헌납한 동포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참관”해달라고 홍보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모아 국방에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애국심을 표명한 것이니 (중략) 정신상으로는 남의 나라 공군보다 유력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한 달 후에 6.25전쟁을 맞이한 공군은 낙동강 방어선까지 물린 상황에서도 적진에서 불과 10여 km 밖에 떨어

지지 않은 대구시내의 공군본부에서 제2회 항공일 기념식을 거행했다. 당일은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된 날이었기에, 기념식이 거행되는 중에 반격작전개시를 알리는 호외가 돌기도 했다. 이후 한국군은 복진을 거듭하여 10월 1일의 공군독립 제1회 기념일은 서울 복귀 속에서 보낼 수 있었다. 1951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선이 다시 남하하자 10월 1일에 “항공일과 공군독립기념일을 더욱 빛내고 의의 깊은 날을 영구히 기념하여 전 국민의 항공사상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제3회 항공일과 공군독립 제2주년 기념일을 통합해서 행사를 치렀다.

1952년 제4회 항공일 및 공군독립 제3주년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 주요인사들과 미공군 장관, 미 극동공군사령관 등을 포함한 한미 고급장성들도 참석했다. 1953년 휴전 이후의 제5회 항공일과 공군독립 제4주년을 진해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제2기 사관생도의 졸업식과 함께 거행되었다. 해를 거듭하며 대지공격, 특수비행 등을 실시하며 행사는 다채로워졌고, 1954년의 제6회 항공일 및 공군독립 제5주년을 서울 한강 인근 정심공원에서 벌여져 “완전히 온 겨레가 경축하는 국민항공의 날로 화”하게 되었다. 시위 비행과 공중분열에 이어 한강 모래 백사장 위에 가설된 목표물에 대한 사격에 “관람자들은 황홀”해졌다.

이듬해 “실로 수십만의 군중이 운집하여 이제야말로 온 겨레가 함께 경축하는” 제7회 항공일에는 “우리 공군 조종사가 태극의 표식도 선명한 우리 공군의 비행기(F-86 세이버)” 2대로 “한강 인도수에 달락말락할 정도의 고도”로 비행했다. 이처럼 연락기로 시작한 한국공군은 7년 만에 제트기를 시내 한복판에서 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날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공군의 위용이 해를 바꿀 때마다 온 겨레 앞에서 과시되었고 국민도 또한 해가 갈수록 항공에 대한 인식과 동경을 더욱 새롭게 하여 (중략) 이 나라 항공계 발전을 더욱 촉진하게” 된 것이다.

항공일은 1956년에 각 군의 기념일이 10월 1일 국군의날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사장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항공사상’ 고취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거나 종종 최용덕 장군이 중국에서 독립운동 시절 수립한 네 가지 목표 중 마지막은 “인류문화의 발전을 따라 모두가 항공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우리 군복, 우리 항공기, 평화를 위한 비행에 이은 그의 마지막 꿈도 항공일의 명맥 유지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AF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조국 영공 수호의 최선봉!

제10전투비행단

빨간 마후라의 발원지이자 한국 공군 3대 전과를 세운 비행단,
수도권과 서북도서의 영공을 수호하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을 알아보자!



▲ 1953년 2월 15일 제10전투비행단 창설식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비행전대

제10전투비행단은 1951년 8월, 제1전투비행단 예하의 최초의 전투비행전대로 창설되었다. 10전투비행단의 모체인 10전투비행전대는 한국전쟁에서 공군의 3대 전과인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평양대폭격 작전, 351고지 공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후 1953년 2월 15일, 강릉기지에서 제10전투비행단으로 승격되었고, 이듬해인 1954년 11월 지금의 수원기지에 터를 잡아 수도권과 서북도서의 최선봉에서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 (왼쪽부터) 빨간 마후라를 두른 김영한 대령, 장지랑 대령, 백정현 중위
(1953년 8월 15일 광복기념 비행 후)

빨간 마후라의 발원지

“공군”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상징 빨간 마후라는 제10전투비행전대 초대 전대장 김영한 대령으로부터 탄생했다. 1951년 11월, 김영한 대령이 처음 착용한 빨간 마후라¹⁾는 곧 10전투비행전대 동료 조종사들에게 퍼져나갔다. 빨간 마후라는 6·25전쟁 당시 10전대 조종사들의 상징이었으며 오늘날에는 모든 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정식 조종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김영한 대령을 비롯한 선배 조종사들의 긍지와 필승의 신념을 이어받는 것과 같다. 그 기원에 제10전투비행단이 함께하고 있다.

1) 빨간 마후라의 유래 :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11월, 김영한 대령이 최초로 착용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김영한 대령은 도미교육을 위해 공군본부로 출장을 가는 길에 친형인 김정렬 소장(당시 공군 참모총장) 댁에 잠시 들렀는데, 이때 형수인 이희재 여사가 입고 있던 자주색 치마를 보고 마후라 제작을 부탁하여 착용하였다(공군역사기록관리단, 「공군 역사자료 발굴위원회 종합보고서」, 2009, pp. 7-9)



▲ 6·25전쟁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F-51 무스탕 편대의 모습

한국 공군 3대 전과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평양대폭격 작전, 351고지 공격작전)

제10전투비행단의 모체인 제10전투비행전대는 1952년 1월 15일,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을 성공시켰다. 이는 기필코 성공시키겠다는 전투조종사들의 구국일념 정신에 기인한 저고도 공격전술로 이룬 성과였다. 이후 1952년 8월 29일, 3차에 걸친 평양대폭격 작전을 통해 북한의 후방 병참시설 및 군수산업시설을 공격, 산업잠재력을 파괴했다. 1952년 10월 28일부터는 휴전협정이 성립되는 순간까지 지상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작전인 351고지 공격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와 같이 한국 공군 3대 전과라 불리는 작전들은 바로 제10전투비행단의 모체, 제10전투비행전대가 이루어 낸 성과이다.



▲ F-4E(위)와 KF-5F의 수월 상공 편대비행

수도권과 서북도서의 최선봉 비행단

제10전투비행단은 F-4E팬텀과, KF-5E/F를 주력기로 하여 수도권과 서북도서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KF-5E/F는 적기의 MDL 도발 시 3분 안에 신속한 출격이 가능하며, F-4E는 장거리 유도무기를 장착할 수 있어 수도권 영공방위에 최적화 되어 있다. 제10전투비행단에서는 선제적 예방관리와 철저한 정비수행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기준일: 8. 7.) 총 10만 9천 739시간의 무사고 기록을 자랑하고 있다.



▲ KGGB를 장착하고 날아오르는 KF-5F

KGGB 전력화로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는 ACE TEN!

10전비는 GPS 기반의 최신 국산 정밀유도무기인 KGGB 전력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KGGB가 전력화됨에 따라 F-5 전투기는 주/야간 지상의 적 주요표적에 대한 전천후 정밀공격이 가능해졌으며, 적 방공망의 위협 범위 밖에서 정밀유도 무장 발사를 할 수 있어 생존성이 향상되었다. 이렇듯 10전비는 최상의 전투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나래울 복지관으로부터 받은 감사패

지역사회 주민들과 상생·화합하는 국민의 군대

10전비는 매년 반기마다 부대 인근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평소 경동원 위문활동과 더불어 저소득 가정 연탄기증 및 농가 일손지원, 지역학생 방과 후 학습지원 등의 각종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매월 80만원의 성금을 모아 부대 인근 복지관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8년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화성시 소재)'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는 등 10전비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국민을 위한 군대로서 소명을 다하고 있다. AF



단(부대) 마크

동근 원 :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

흰 줄선 : 활주로와 10전투비행단의 1을 상징

태극마크 :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며 10전투비행단의 0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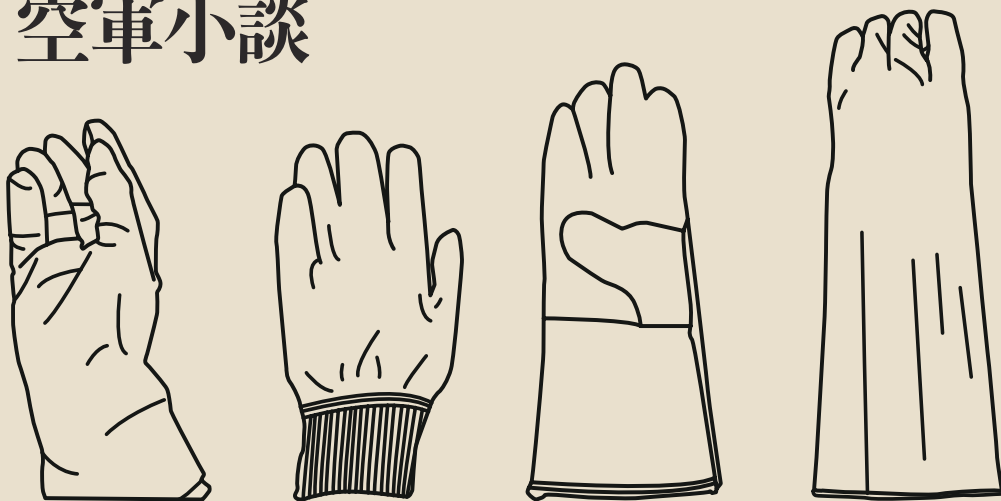
별 : 공군 최일선 부대로서 영원히 빛남

부대 연혁

- 1953. 2. 15. 제10전투비행단 창설(초대 단장: 대령 김영환)
- 1954. 11. 강릉기지에서 수원기지로 이동(現기지)
- 1955. 6. 20. 한국공군 최초 제트전투기 F-86F 5대 인수
- 1960. 5. 5. 한국공군 최초 10,000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 1965. 4. 30. F-5A/B인수(한국공군 최초 초음속 전투기 보유)
- 1982. 9. 16. 국산전투기 KF-5E/F(제공호) 인수
- 2003. 9. 8. 201대대 1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수립 (공군역사상 최초 및 최고, 수립기간: 1978. 2. 24. ~ 2003. 9. 8.)
- 2017 환경보전활동 부대 표창(대통령 표창)
- 2017/18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종합 최우수대대 (대통령 상장 / 101대대, 201대대)

공군소담 空軍小談

- 장갑 -



장갑은 우리에게 친숙한 물건이다. 우리는 물건을 옮길 때, 줄다리 기 시합을 할 때, 추울 때 손을 보호하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장갑 을 낀다. 또 제초할 때, 벽에 못을 박을 때, 페인트칠을 할 때도 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다.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종 류 또한 다양한 장갑은 용도에 맞게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군에서도 장갑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 불꽃과 열을 다루는 용접반, 화공약품을 사용하는 방부반, 날카로운 금속을 취급하는 판금반 등에서는 장갑 없이 작업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안전한 작업을 위한 필수품, 공군의 장갑을 알아보자



정비사는 임무에 맞게 다양한 장갑을 착용하며, 장갑은 화공약품, 불꽃 등으로부 터 가장 노출되기 쉬운 손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공군에서 사용하는 장갑의 종류



목장갑

면재질에 고무 코팅이 되어있다. 다양한 작업에 흔하게 사용된다.



니트릴 장갑

고무(니트릴) 재질이며 얇은 니트릴 장갑 은 의료용으로도 사용한다. 화공약품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코팅 장갑

나일론 내피 + 니트릴 코팅으로, 착용 감과 내구성이 좋지만 보호 강도는 살 짝 떨어진다.



용접용 가죽장갑

고온의 열과 불꽃으로부터 손을 보호한다. 용도에 따라 크기와 두께가 다르다.



방열장갑

고온 환경에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장갑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사 신태영 제19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제작중대 판금반



판금반은 항공기의 주요 기골과 표면을 수리합니다. 정비작업 중에는 날카로운 물건을 옮기거나, 고온에 노출될 일이 많습니다. 장갑은 이러한 환경에서 손을 지켜주는 보호구입니다. 그런데 장갑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작업도 있습니다. 드릴, 밀링, 선반 등의 작업은 회전절삭 공구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장갑이 빨려 들어가면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을 지키기 위해 장갑 착용이 중요하지만 각 상황에 맞는 재질 및 착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장갑은 손을 지켜주는 보호구이다.



중사 서지완 제19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제작중대 비파괴검사반



비파괴검사는 항공기의 균열을 사전에 탐지하여 비행 사고를 막아줍니다. 비파괴검사를 할 때는 X-ray나 초음파, 와전류 장비 등을 사용하는데, 세밀하고 섬세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수술용으로도 사용하는 얇은 니트릴 장갑을 사용합니다.

장갑은 안전벨트와 비슷합니다. 작업 중 유해 화학물질을 마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갑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때에 따라선 손을 직접 보호하는 안장갑과 화공약품에 강한 바깥장갑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갑 덕분에 저희는 안심하고 작업에 임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정비사의 안전벨트다.



하사 최세날 제19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제작중대 용접반



장갑은 용접작업으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용접작업을 할 때는 열과 빛, 불꽃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의와 장갑을 꼭 착용합니다. 특히 손은 용접기에 가장 가까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장갑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임관한 지 얼마 안되 작업 종류에 맞는 장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피복아크 용접을 할 때 특수용접용 장갑을 착용한 적이 있습니다. 작업 중에 손이 뜨거워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있어 용접기가 칼이라면 장갑은 방패입니다. 장갑을 착용하면 불안에서 벗어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갑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다.



하사 이창현 제19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제작중대 방부관리반



장갑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손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작업 특성상 장갑이 오염되어 못쓰게 되는 교환주기가 굉장히 짧아 장갑을 수시로 교체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지켜준 장갑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방부작업 시에는 니트릴 장갑을 많이 사용하는데, 통풍이 안 되어 더운 여름에는 장갑 안이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약품을 장갑 없이 다룬다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장갑은 정비사 안전에 직결되는 도구이며, 저에게 있어선 제2의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F

#장갑은 제2의 손이다.



서울 ADEX 201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2019. 10. 15(화) ~ 20(일)
서울공항

■전문관람일 10. 15(화) ~ 18(금)

■일반관람일 10. 19(토) ~ 20(일)

※학생의 날 10. 18(금)



www.seouladex.com

주최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KASA 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한국방위산업진흥회
KDI Korea Defense Industry Associ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후원 |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대한민국육군
Republic of Korea Army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대한민국해병대
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방위사업청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성남시
Seongnam City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국방/군사일반] 미래 한반도 안보 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지침서!

이 책은 1990년 이후 연구를 거듭한 끝에 1997년도에 최초로 제정되어 세 차례 개정된 우리 군의 '군사기본교리'와 걸프전쟁 이후 치러진 현대전의 수행 원리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미국, 영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군사교리와 군사전략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 한반도 안보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의 군사교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방개혁 2.0'의 기본전투개념을 중심으로 현존 위협인 북한뿐만 아니라 미래 잠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 초국가적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교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미래 군사력의 건설방향과 군인으로서의 소명의식을 한국군의 윤리관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군사교리 / 안재봉 /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 6월 / 326p / 18,000원

일반장병 추천도서



[역사] 역사학자와 미술가가 만나 생생히 되살린 '컬러풀' 역사

영국의 역사가 댄 존스와 브라질의 미술가 마리아 아마랄이 함께 쓴 <역사의 색>은 과거의 사진들에 색을 입혔다. 무채색의 사진에 색을 입힘으로써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 같은 역사를 맞이한다.

역사적 인물의 컬러 사진이 가장 눈길을 끈다. 이탈리아 통일을 이룩한 영웅 주세페 가리발디에겐 그의 상징인 붉은 셔츠를 입혔다. 독일 첫 통일을 이룩한 철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노년기, 청나라 말기의 실력자 서태후의 화려한 모습도 볼 수 있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배후 지휘한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를 승계한 무자비한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1922년 고리키의 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새롭다. 나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도르트문트에서 군대를 향해 연설하는 장면과 이탈리아 파시즘 '일 두체(수령)' 베니토 무솔리니의 꿈직한 최후의 모습도 채색됐다. 한 장의 사진에 색을 입히는 데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했다고 한다. 2년여에 걸친 방대한 작업의 결과물은 교양서로도 훌륭한 가치를 가진다.

역사의 색 / 댄 존스, 마리아 아마랄 / 월북 / 7월 / 456p / 19,800원



11전비, 최대무장장착훈련

제11전투비행단은 8월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전시상황을 가정한 실전적 야외기동훈련(FTX)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최대무장장착 훈련은 긴급출격 시 최대량의 무장을 최단 시간 안에 장착하는 훈련으로써 무장·정비사들은 일사불란하게 항공기에 무장을 장착해 즉시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대비태세 현장지도 실시

참모총장은 7월 29일(월) 김해기지를 찾아 공중감시 및 경계작전 태세와 KC-330 공중급유기 전력화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폭염과 장마, 태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는 임무 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여러분은 우리 공군의 전력을 한 차원 높여 줄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정예 핵심요원”이라고 강조한 뒤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침범,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 안보상황을 인식하고 영공수호의 핵심 전력으로서 공중급유기 전력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 전자전 컨퍼런스 주관

참모총장은 7월 23일(화) 공군회관에서 2019 국제 전자전 컨퍼런스를 주관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항공우주 전자전의 미래’를 주제로 민·군·학·연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참모총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최고 전자전분야 권위자들이 최신 기술동향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오늘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이 항공우주 전자전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능해보고, 공군의 전자전 능력과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훈비,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

제3훈련비행단은 8월 9일(금) 비상조치 능력을 배양하고 비행임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활주로 폐쇄 시 처리절차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비, 공중급유기 3호기 도입

제5공중기동비행단은 7월 21일(일) KC-330 공중급유기 3호기 도입 환영식을 실시하였습니다.



8전비, 국제항공소년단 부대 견학

제8전투비행단에 8월 6일(화) 국제항공소년단의 부대 견학이 있었습니다. 이번 견학은 블랙이글스 에어쇼 관람/홍보관 견학, 무장전시실 견학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전비, 전반기 전술훈련 경연대회 개최

제10전투비행단 대공방어대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2019년 전반기 전술훈련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참가장병들은 항공기 식별 발칸 분해결합 및 고장수리 능력 등 적 공중 전력의 침투를 막기 위한 다양한 과목을 수행했습니다.



15비, '19년 하반기 연합연습 간 기지방어 종합훈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8월 13일(화) 유사시 적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기지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기지방어 종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9전비, 합동 대테러 대응훈련

제19전투비행단은 7월 23일(화) 충주체육관에서 특수임무반, 화생방지원대 및 EOD반이 출동하여 합동대테러 대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군인의 편지

존경하는 반장님께

From, 제8145부대 기지중대 헌병반

병장 김장한



To, 한동엽 중사님

필승! 반장님, 김장한 병장입니다! 우편함에서 제 편지를 보고 놀라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장님과 사무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다가 갑작스레 편지로 인사를 드리자니 어색하고 쑥스러운 기분이 고개를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이 아니면 반장님께 그동안 말로 다하지 못했던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반장님, 군 복무의 끝이 다가오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군대에 입대한 것, 공군에 지원하여 헌병이라는 특기를 부여받고 이 부대에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활환경, 헌병 특유의 근무환경 등 군 복무 중 힘든 요소가 많았음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장님이라는 훌륭하신 분과 일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장님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술선수범’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히들 ‘술선수범’을 가볍게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려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술선수범이라는 글자 안에는 책임감과 자기통제, 절제, 성실성 등 실천하기 어려운 수많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장님께서서는 항상 저희에게 말과 행동으로 이 술선수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의 무더위 속에서나 오감조차 무뎠지는 못한 속에서조차 말입니다.

반장님은 자신이 지치고 힘들 때에도 언제나 웃는 얼굴로 모든 헌병들에게 “수고가 많다.” 한 마디를 따뜻하게 건네주셨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교대근무로 힘들던 저희에게 이보다 더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힘들어 할 때, 반장님께서서는 저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분서주하셨습니다. 반장님의 도움은 하루하루를 이겨내던 저희에게 단비 같았습니다. 항상 술선수범하시는 반장님을 볼 때마다 저는 2차 세계대전의 명장 조지 S. 패튼 장군의 말이 떠오릅니다. 언제나 최전선에서 부하들을 독려하던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부하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는 건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건 상급자 또한 부하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행동이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의 척도다.”

제가 마지막까지 군 복무에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항상 제 앞에 먼저, 더 열심히 나아가시는 반장님이 계셨던 덕분입니다. 반장님을 보며 저는 전역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를 얻었고 반장님을 따라하며 진정한 리더의 자세를 배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제 자신이지만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하며 보고 느낀 반장님의 모습을 잊지 않으며 발자취를 조금이나마 따라가려 합니다. 반장님께서 앞으로도 건강히 군 생활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9년 8월 1일 더운 한 여름의 어느 날,
병장 김장한 올림.

<10월호 이벤트>

창군 70주년을 맞은 공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인트라넷 : moa5819@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비 00대대 상병 김공군)



어머니의 나이

From. 방공유도탄사령부 헌병대

일병 이승준



To. 어머니

37.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어머니의 나이입니다. 어머니가 29세에 저를 낳으셨으니 제가 9살 때였겠네요. 누군가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보면, 저는 아직도 37이라는 숫자가 아른거리는데, 어느덧 십의 자리가 두 번이나 바뀌고 저는 어머니의 53번째 생신을 축하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지금 25살이니까 어머니의 일생을 따라가자면, 저는 4년 뒤 한 아이의 부모가 됩니다. 부모라뇨! 아직 대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고, 남들 다 진작 갔다 온 군대에 이제야 와 있는 저입니다. 아이를 훈육할 정도로 그렇게 어른스럽지도 않습니다. 4년 후라도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20대 후반에 부모가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이란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니, 저는 한발 늦게나마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 보면 군대가 저를 바꿔놓는 계기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훈련소를 거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훈련소에 있을 때는 한창 겨울이라, 해도 늦게 떠서 이른 아

침 구보를 땔 때마다 금성이 항상 보였죠. 군대 오기 전에는 일찍 일어날 일이 없어서 금성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금성을 보니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특히 새벽같이 일을 나가는 와중에도 자식을 생각에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가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많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렇게 일찍 일을 나가고 아침상을 차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이상은의 「언젠가는」의 가사처럼, 저는 젊음과 사랑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훈련소에서 그 감정들은 그동안 익숙했던 것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허투루 보낸 사회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께서, 건강검진 갔더니 어디가 이상하니 정밀검사 한번 해보라더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별 일 아닐 거라 큰소리쳤지만, 사실 겁이 많이 났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 때 또 한 번 실감이 나더군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어머니의 나이도, 저의 나이도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게요. 이번 휴가 나가서는 제가 꼭 아침 한 상 차려드려야겠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사랑하고 늘 고맙습니다.

사랑, 희생이 기쁨이 되는 그 순간

From.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수송대 정비중대

일병 채희욱



To. 아버지

따가운 햇빛이 내려쬰는 무더운 여름, 아빠는 시원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울봄, 진주에서 펄펄 눈물 쏟는 엄마와 다르게 활짝 웃고 계시던 아빠, 그 웃음을 보며 씩씩하게 첫 발을 내딛었던 그 때가 벌써 100일을 훌쩍 넘겼어요.

훈련소의 힘든 훈련들이 계속되고 또 묵묵히 이겨내던 시절에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일상의 소중함이에요.

이미 밥을 먹었더라도 가족 중 누구 한 명이 혼자 앉아 손가락을 들면, 함께 밥상을 지키며 얘기했던 일상. 오래 전부터 해외에서 근무하신 아빠가 휴가를 나오시면 어김없이 짐을 챙겨 산으로 바다로 전국 곳곳, 가끔은 바다 건너 멀리 떠났던 그 추억들.

저희 감독관님께서 제가 배속 받았던 첫 날, “너희를 아무 조건 없이, 그 무엇보다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부모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던 신병 때, 그 말을 듣고 사랑이 뭔지 생각해 보았어요. 아빠는 제가 10살 때부터

거의 10년을 해외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먼 타지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아빠를 볼 때마다 그 얼굴에서 ‘기쁨’만 보였어요. 아빠를 따라 갔었던 아프리카에서 한동안은 외로움과 그리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을 위한 희생조차 기쁨으로 보여주셨던 아빠가 존경스러워요. 아빠는 자식들과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것이 후회된다고 하셨지만 아빠도 아셔야 해요. 아프리카의 외딴 시골을, 세계의 최고층을, 또 러시아에서도 그 순간을 돌만이 함께한 부자는 우리 부자뿐이란 걸. 배웅하는 가족을 뒤로 하고 공항을 나서는 그 발걸음 하나의 무게를 아직은 잘 가늠할 수 없지만 저도 아빠처럼 부모님을, 누나를, 또 제가 꾸려갈 가족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요즈음 영어와 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어렵고 힘들까봐 망설였던 목표를, 개인을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꿈꾸고 실천해 나가는 중이에요. 또 아빠가 말씀하신 저만의 신념, 그것을 찾기 위해 매일 일기도 쓰고 책도 읽으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신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준다고 읽었어요. 앞으로의 모든 순간마다 저의 행동과 판단에 기준이 될 저의 신념을 꼭 찾을게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지만 군대에서 스스로 설정한 기준점을 생각하며 신념을 찾는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희생조차 기쁨이 되는 그 순간, 그 때가 사랑이란 것을 가르쳐주신 아빠, 많이 사랑해요.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뇌는 탄력적이다

-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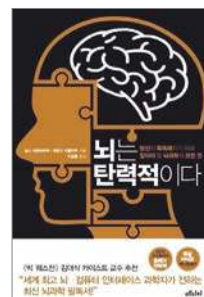
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좌뇌나 우뇌, 한 쪽 반구를 절단하게 된다면 영원히 한 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 하게 될까? 아니다! 절단 직후에는 명백히 절단한 뇌 부위가 담당했던 몸의 반쪽을 쓸 수 없겠지만, 몸을 움직이려는 노력만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이는 뇌의 무궁무진한 변화 가능성, 즉 가소성(Plasticity)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흔히 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뇌의 특정 영역이 특정 역할을 맡는다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뇌는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자신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유연하다. 그렇기에 한 쪽 뇌가 없어졌을 때, 다른 쪽 뇌가 죽은 동료의 임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뇌의 가소성을 이용한다면 약물 없이도 그에 못지않는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뇌 질환에 대해 지나치게 약물 치료에 의존하고 있는 의학계를 비판한다. 원하는 보상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개선해나가는 뇌의 단순한 원리를 이용한 '뉴로피드백(Neuro-Feedback)'은 저자가 소개하는 혁신적인 대안이다. '학습'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전혀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은 채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구 소유자의 팔다리 움직임을 더욱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고, ADHD 환자에게 집중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소위 사이코패스에게 불안감을 학습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저자는 감금증후군, 우울증, 강박증, 트라우마, 치매, 중독, 서번트 증후군 등 다양한 소재를 뇌의 가소성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더 나아가 저자는 각 주제와 관련하여 독자로 하여금 토론 거리를 던져준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

글
제6639부대
상병 김윤덕



하는 감금증후군 환자 중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덕분에 외부와 온전한 소통이 가능해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 과거 판사였던 한 환자의 경우 움직이지 못하게 된 후 자기 생명 처분권에 관한 서류를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신의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미래의 자신의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게 되도 괜찮을까?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은, 실은 아직 겪어보지도 않은 상황 속의 자신이 어떠할지 확신할 수 있다는 우리의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인간이 변하기 어렵다는 말은 자명해 보이지만, 인간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탄력적이다. 변화를 유도하기 어려울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지능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한 사람을 구제불능으로 취급, 또는 타고난 악인으로 낙인찍고 문제 해결을 포기한다. 하지만 그것은 수많은 경험과 학습, 그리고 사회 구조가 결합하여 완성된 결과물이 아닐까? 복잡하게 구성된 우리들을 세밀하게 뜯어볼 때, 변화는 가능한 것 같다. AF



뇌는 탄력적이다

닐스 비르바우머 지음
메치미디어

90년생이 온다

- 새로운 세대를 이해하는 노력

글
공군대학 교학행정처
소위 박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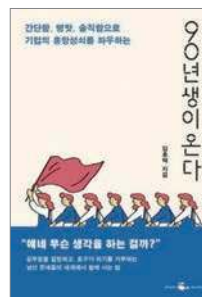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세대갈등이다. 현재 시대를 주도하는 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 '세대'는 정치, 사회, 문화 곳곳에 영향을 주는데, 구세대와 신세대 사이의 갈등은 사회에 여러 영향을 끼친다. 이런 세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인데,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책이 바로 『90년생이 온다』이다. 이 책은 80년생 저자가 새롭게 등장하는, 흔히 '9급 공무원 세대'라 불리는, 90년생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지에 대해 분석한 책이다. 그들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의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90년생이 온다』에서 저자는 90년생의 특징을 3가지로 분석한다. 첫 번째, 90년생은 '간단함'을 추구한다. '아싸(아웃사이드)', '문상(문화상품권)' 등의 언어축약에서 볼 수 있듯이 번거롭다고 생각되는 긴 단어를 축약하여 간단하게 사용한다. 두 번째로 90년생은 '재미'를 추구한다. 이전 세대들이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던 것과 다르게, 90년생들은 '삶의 유희'를 추구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병맛'이다. '병맛'은 대체로 어떤 대상이 '맥락 없고 형편없으며 어이없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 초기에 일부 사람들이 즐기던 이런 '병맛' 문화는 이제는 광고, 뮤직비디오 등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다. 마지막 90년생의 특징은 '정직함'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신뢰의 시스템화'를 외치면서 사회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은 결국 가장 정직하고 신뢰가 가는 시스템이 구조화되어 있는 공무원시험으로의 선호로 이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90년생을 직원으로서, 소비자로서 대할 때 저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조언한다. 여러 가지 조언 중 인상적인 조언은 '참견하지 말고 참여를 하게 해줘라.' 다. 흔히 어른세대가 신세대를 대할 때 주로 하는 말들을 보면 '나 때는~', '우리 세대에는~' 등의 '참견'을 한다. 90년생들은 이러한 어른들을 '꼰대'라 얘기하면서 피하고 꺼려한다. 그러므로 저자는 오히려 참견보다는 그들이 직접 업무나 기업의 프로젝트들에 '참여'하여 자신에 의견을 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참여가 그들에게 '간단'하면서 '재미'있고, 그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90년생의 특징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 책은 기업가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세대인 90년생에 대해 분석하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 얘기하고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는 90년생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 공군에도 꼭 필요하다. 90년생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다면 우리 군에서의 세대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더 나은 공군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AF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지음

도서출판 Whale Books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우주인 - 1

별이 되고 싶은 사람, 우주인

인류는 하늘을 날고 싶다는 열망으로 항공기를 만들었듯, 우주에 가고 싶다는 꿈을 품고 우주인을 탄생시켰다. 이번호에서는 우주인의 간단한 개념과 그 분류, 우주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

우주인의 분류

우주인(Spaceman)이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 우주로 나가는 사람, 즉 우주비행사(Astronaut)을 일컫거나 지구 밖의 지식을 갖춘 생명체, 외계인(Alien)을 지칭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우주비행사를 우주인이라 칭하고 있다. 우주인은 일반적으로 우주선을 조종하는 사람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우주인에 대한 자세한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우주선장(Commander, CDR)** : 승무원 및 임무수행에 대한 총책임자(우주조종사 겸직 가능), 우주선/국제우주정거장(ISS) 임무성공 및 안전관리 책임

■ **우주조종사(Pilot Astronaut, PA)** : 우주선 조종 및 시스템 운영책임자, 우주선내 통제 및 선장 보좌역할 수행

■ **임무전문가(Mission Specialist, MS)** : 국제우주정거장 시스템 운영책임자, 우주유영 및 우주선/국제우주정거장 보수

■ **우주실험전문가(Payload Specialist, PS)** : 국제우주정거장 과학실험

기타

- 단기방문 과학자(Visiting Scientist) : 단기간/일회성 과학실험 수행
- 우주여행객(Tourist) : 비용을 지불하고 단기간 우주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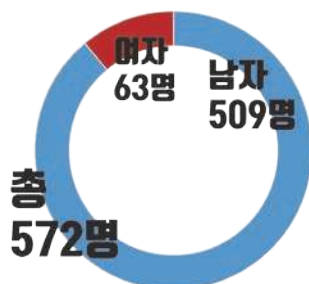


〈우주조종사(Pilot Astronaut)〉, 출처 : NASA

통계로 보는 우주인

1961년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이 세계 최초로 우주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37개국 570여 명의 우주인이 탄생하였다. 2019년 8월 기준의 우주인에 대한 기록들을 통계로 살펴보자.

〈역대 우주인 수〉



〈국가별 우주인 배출현황(상위 5개국)〉





〈우주인 최초의 기록〉

- **남자** : Yuri Gagarin 
- **여자** : Valentina Tereshkova 
- **첫 우주유영** : Alexi Leonov 
- **첫 달 착륙** : Neil Amstrong 

〈우주인 최고 기록〉

- 878일** 우주체류(누적) / Gennadi Padalka 
- 78.8시간** 우주유영(누적) / Anatoliy Solovyov 
- 7회** 우주진입 / Franklin Chang Diaz 등 2명 
- 16회** 우주유영 / Anatoliy Solovyov 

우주인의 선발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우주인은 임무에 따라 선발과 훈련과정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우주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신체조건은 비슷하다. 미국의 경우, 대담성과 용기, 냉정함과 결단력, 튼튼한 체력, 강인한 정신력을 우주인의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다. 우주조종사의 경우에는 1,000시간 이상의 제트기 조종 경험과 관련분야 학사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임무전문가는 요구되는 신체조건이 엄격히 맞아야 하며 공학, 생명과학, 물리 등의 학사학위가 있거나 3년 정도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까다롭게 선발된 이들은 더 까다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거쳐 우주인이 된다.



〈우주인의 훈련〉, 출처 : NASA

대한민국의 우주인과 한인출신 최초 NASA 우주인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은 2006년에 선발하였는데, 무려 36,200여 명의 지원자 가운데 이소연씨가 선발되었다. 이소연씨는 우주인 훈련을 거친 후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우주정거장에서 연구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소연씨 이후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우주인은 탄생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 LA출신 한인 2세 자니 김(Jonny-Kim)씨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씬' 복무 후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된 뛰어난 인재이다. 2017년 응급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자니 김씨는 NASA의 우주비행사 최종 후보로 선발되었다. 김씨는 2년간의 우주비행사 훈련을 마치면 NASA의 새 우주선인 오리온(Orion)에서 심(深)우주 임무 등 우주비행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출처 : KAIST



〈한인출신 최초의 NASA 우주인, 자니 김〉, 출처 : NA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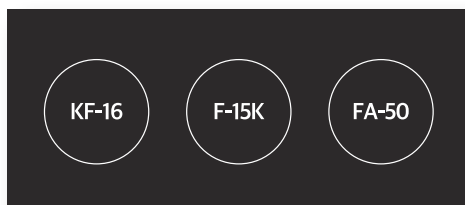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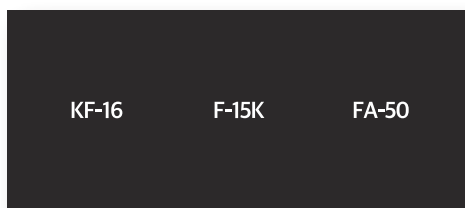


생활 타이포그래피 도형의 사용

포스터나, 패키지, 명함에 선이나 동그라미 같은 도형이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도형이라도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느껴지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도형을 사용하는 이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든 디자인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든, 조형적으로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든 말입니다. 디자인에 사용된 도형이 어색한 경우는 그 이유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화에는 '이유에 맞게 도형을 사용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형은 정보를 강조하거나, 복수의 정보들을 정렬하거나, 정보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세 개의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단순히 텍스트를 나열했으며, 두 번째 그림은 원 테두리를 적용했습니다. 원 테두리를 적용하였더니 시각적으로 각 정보가 구분되고 강조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사진만 있는 것보다는 뒷편에 도형이 있는 것이 사진을 더 주목되게 만들어 줍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제목은 오른쪽 정렬인데 본문은 왼쪽 정렬입니다. 제목과 본문의 정렬 방식이 서로 다르다보니 하나로 묶여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을 그려주면 제목과 본문이 정돈되고 하나의 덩어리로 묶입니다.

공군핵심가치

공군의 핵심가치는 변화와 혼동의 시대에 공군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군이 추구하는 핵심목표에 대한 공군인의 의식을 고취하고,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군핵심가치

공군의 핵심가치는 변화와 혼동의 시대에 공군인의 정신적 지주로서, 공군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윤리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군이 추구하는 핵심목표에 대한 공군인의 의식을 고취하고, 일과 의사결정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게 할 것입니다. 나아가 변화와 혁신의 근본적인 원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텍스트만 있을 때보다 텍스트 아래에 줄을 긋거나 배경에 사각형을 둘 때 정보가 더욱 강조되고 제목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텍스트 주변에 선을 하나 긋더라도 위치와 길이, 굵기에 따라서 선과 텍스트의 관계, 그 의미가 변화합니다.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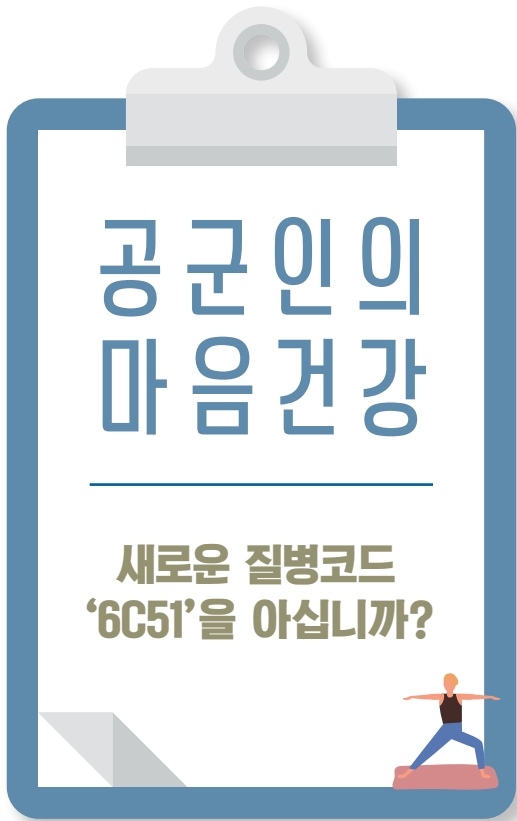
대한민국 공군 창군 70주년

텍스트에 선만 하나 잘 그어도 깔끔해지고, 사진에 원만 하나 잘 배치해도 주목도가 올라갑니다. 강조하고자하는 정보에 도형을 잘 활용한다면 더욱 정돈되고 주목받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도형을 사용하더라도 정보가 강조되지 않거나, 집중에 방해가 된다면 도형은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텍스트의 크기, 굵기, 행간 만으로도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굳이 도형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글
심호규 교수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



A군의 어머니는 오늘도 걱정이 많다. A군은 오늘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게임 중이다. 책상 옆에는 컵라면이 놓여 있고, 줄담배를 피우며....., 이 이야기를 들던 B양의 어머니는 지방에서 혼자 자취하는 B양을 떠올린다. 어렵게 직장 들어간 B양의 자취방은 잘 정돈되어 있는 듯 했다. 하지만 냉장고에는 생수와 맥주 그리고 간단한 안주거리만 들어 있다. B양은 직장일이 힘들어 매일 맥주 한 캔 정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다고 한다. 어머니는 B양이 혹시 알코올 중독이 아닌지 걱정이다. 두 어머니는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 오히려 걱정 없겠다며 C일병의 어머니를 부러운 눈으로 본다. 하지만 C일병 어머니의 얼굴은 어둡다. 이유는 지난 4월부터 점점 아들의 통화료가 많이 나오더니 급기야 저번 달에는 통화료가 50만원 가까이 나온 것이다. 아들은 돈을 벌고 있다며 다 투자라고 하는데, 대학 다닐 때도 인터넷게임과 인터넷도박으로 500만원의 대출을 갚아 준 경험이 있기에 걱정이다.



WHO는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 B위원회에서 국제질병분류체계 11판(ICD-11)에 게임 중독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 6C51』이란 질병코드를 부여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으로 포함시켰다. 새로운 질병이 등록된 것이다. 게임중독은 아직은 진단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다. 1996년 골드버그(Goldberg)가 DSM-IV의 물질 중독 기준으로 최초로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와 개념적인 진단 준거를 만든 이후, 물질이 아닌 행위를 기반한 중독은 도박중독에만 적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게임중독을 보이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게임에 대한 내성을 보인다. 시간이 갈수록 더 자주, 더 오래 게임을 하고 싶다.
 2. 게임 금단 증상이 있거나 금단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 금단 증상으로는 초조, 불안, 무기력, 게임 장면 등이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등 게임을 안하는 동안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움이 온다.
 3. 게임을 줄이거나, 끊겠다고 다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게임을 한다.
 4. 게임이 주요생활이나, 학업, 가정 및 대인 관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밤새워 게임을 하느라고 지각이나 결석을 하며, 병사들의 경우 귀영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5. 게임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계속 게임을 한다. 장기간 게임으로 머리가 심하게 아프지만 게임을 멈추지 못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해 과도한 현실(현금구매의 속어)을 하는 경우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게임 중독 척도가 이용되는데, 다음은 Kimberly Young의 인터넷 중독 진단 검사에서 '인터넷'을 '게임'으로 바꾼 것이다.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핸드폰이나, PC로 게임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평가하여 보는 것이다.

- ◆ 항상 게임에 대해 생각을 한다.
- ◆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접속하고 있다.
- ◆ 게임을 조절하거나 끊거나 줄이기 위해 반복적으로 노력하지만, 항상 실패하고 있다.
- ◆ 게임을 중단하려면 불안하고 울적하고 우울하고 짜증나는 느낌이 든다.
- ◆ 게임을 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만족스럽고 계획했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 ◆ 중요한 인간관계나 직업, 교육, 경력 상의 기회가 게임 때문에 위협받거나 위협에 처한 적이 있다.
- ◆ 게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주변사람에게 감추거나 거짓말을 한 적 있다.
- ◆ 문제로부터 도피하거나 불쾌한 기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게임을 사용한 적이 있다.

* 5개 이상 '예'를 선택하면 게임 중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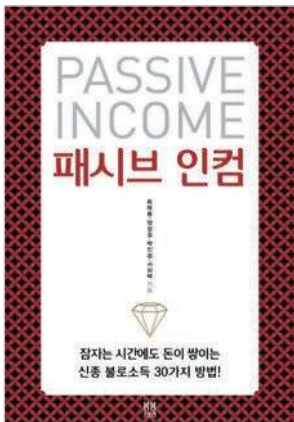


예전에는 만화책, 당구, 인터넷 채팅 등이 각각 현재 게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게임중독 문제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기술발달에 인간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지 않을까 한다. 부모님들 세대에게도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수단 이상이며, 30대 이하 세대에게는 혈액이나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 기기들과 함께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최신 정보통신 기기의 중독성이 아니라 게임을 통제할 수 있느냐이다. 게임중독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다. 물질과 관련하여 물질남용(substance abuse)은 약물에 지나치게 만성적으로 의존하게 되어 가족과 사회적 관계, 직업 기능 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자신과 타인을 위협에 빠지게 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물질의존(substance dependence)은 약물을 남용할 뿐 아니라 약물이 그들 삶의 중심이 되고 내성과 금단 증상 중 하나 또는 둘 다 발생하는 신체적인 의존 현상이 나타내는 상태로 이를 『중독 addiction』이라고도 한다. DSM-5(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관련 유발 물질로는 알코올, 니코틴(담배), 카페인(커피, 차 등), 마약류(마리화나, 코카인, 암페타민, 아편류 등), 환각제, 흡입제(시너 등) 및 일부 의약품(항

불안제, 수면제) 등이 있으며, 비물질 관련 장애 물질로는 도박 장애가 있다. 이제 여기에 게임중독도 추가될 것이다. 그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쇼핑 중독, 영화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매운음식 중독, 연예인 중독 등 중독이라는 용어를 흔히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그리고 스스로 이런 행동들에 대한 강박적인 욕구와 행동에 대한 통제를 실패하고 자존감이 악화되며 자기중심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중독자의 모습이다. 주변에서 흔하게 금연이나 금주를 결심하는 분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독치료의 어려움도 같이 보게 된다. 10년 넘는 금연이 순간의 스트레스로 물거품이 되고, 새해 다짐으로 금주를 선언하고 설날 음복 딱 한잔만으로 1년 내에 음주를 하시는 분들을 말이다. 이처럼 중독은 치료도 어렵지만 이를 평생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다. 물질중독이든 행위중독이든 우리 삶에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평생 악영향 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 그것이 용기이다. AF



첫 독자의 편집후기



『패시브 인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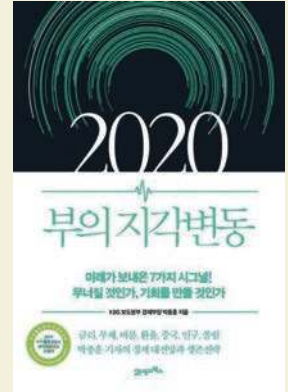
최재웅, 양성길, 박인섭, 서의택 지음
봄봄스토리 펴냄 | 228쪽 | 16,000원

“잠을 자도, 놀아도 돈이 나온다” 패시브 인컴으로 ‘불로소득’ 만들기

이탈리아 어느 마을에 브루노와 파블로라는 두 친구가 있었다. 이들은 마을 광장 물탱크의 물이 줄어들자 가까운 강에서 물을 길어다 파는 일을 한다. 브루노는 물을 길어다 파는 일에 열중하지만 파블로는 생각이 달랐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강에서 마을까지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한다.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까지 파블로는 한 푼도 벌지 못했지만, 완성되고 나서는 엄청난 부자가 된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브루노보다 훨씬 싸게 물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기업가 버크 헤지스가 2005년 출간한 책 『파이프라인 우화』에 담긴 이야기다. 헤지스는 책에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많을수록 좋습니다”라고 말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SNS 인기 강사이기도 한 최재웅 한국1인미디어산업협회 회장과 ▲4차산업혁명연구원 공동대표와 한국1인미디어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양성길 인싸이트컨설팅 대표 ▲미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 ‘American Express Financial Advisors’에서 자산관리 전문가로 근무했으며 10여 년간 교보생명에서 고액자산가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한 박인섭 등은 이 책에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불리는 30가지 수익구조를 소개한다. 비유하자면, 잠자고 노는 시간에도 불로소득이 들어오는 30가지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 비유가 와닿지 않는다면 ‘패시브 인컴’은 컴퓨터 게임에서 조작 없이도 항상 효과를 발휘하는 ‘패시브 스킬’과도 상통한다. 즉, 적극적으로 돈을 좇지 않아도 통장에는 차곡차곡 돈이 쌓이는 수익구조다. 책은 ‘온라인 수입’과 ‘콘텐츠 수입’ ‘임대 수입’ 등으로 ‘패시브 인컴’을 구분한다. ‘온라인 수입’에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제는 다소 식상한 방법뿐만 아니라 팟캐스트·블로그 제작,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제휴 마케팅, 드랍쉬핑(판매자가 상품 재고를 두지 않고 주문을 처리하는 유통 방식) 등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익원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접 블로그에 올릴 콘텐츠를 제작하기보다는 적당한 가격대에 괜찮은 작가를 구인하는 것이 좋다. 자격을 갖춘 작가를 고용해 원하는 키워드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한 후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반복하면 빠르게 양질의 콘텐츠를 담은 블로그를 만들 수 있다. 블로그 방문자가 늘어나면 제휴 마케팅이나 직접 광고, 제3자 광고 등 다양한 수익화 수단을 이용해 돈을 만들어 내면 된다. 큰돈은 아니지만 온라인 설문조사 업체에 등록해 꾸준히 참여하는 것도 ‘패시브 인컴’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 푼돈을 벌 수 있는 설문조사도 있지만, 의외로 온라인 설문조사 중에는 십만원 단위를 벌 수 있는 것도 있다. ‘드랍쉬핑’이란 상품 목록을 나열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고객이 해당 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제조업체나 납품업체가 제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웹사이트만 개설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마치 ‘파이프라인’을 소유한 것처럼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콘텐츠 수입을 다루는 장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법들을 설명했다. 웹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훌륭한 코딩 및 프로그래밍 기술이 있다면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해볼 만한 비즈니스다. 인기를 얻은 앱이 매달 수백만원의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사례가 많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무상으로 공개된 소스코드) 등을 사용해 앱을 제작하고 앱 스토어에 등록해 홍보하면 된다. 이 외에도 워드프레스(웹상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출판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콘텐츠 관리시스템) 테마를 제작하는 방법, 사진을 찍어 스톡 사진 사이트(자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을 업로드해 요금을 받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올려 사용자에게 로열티를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 수입’을 다루는 장에서는 ▲자신의 차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에 가입해서 차나 자전거를 대여하는 방법 ▲사용하지 않는 옷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업체에 가입해 옷을 대여하는 방법 ▲주차공간이나 창고, 집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업체에 가입해 주차공간을 대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저자들이 설명한 방법들을 이용해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저자들에 따르면, ‘패시브 인컴’ 창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며, ‘패시브 인컴’을 통해 이익을 얻기까지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책에 나온 다양한 ‘패시브 인컴’ 중에 몇 개를 골라 자신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보자. **AF**

01.



『2020 부의지각변동』
박종훈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
260쪽 | 17,000원

02.



『그로스 아이큐』
티파니 보바 지음 | 안기준 옮김 | 안드로
메디안 펴냄 | 424쪽 | 18,700원

01. 20년 경력의 기자 출신 저자 박종훈은 이 책에서 금리, 부채, 버블, 환율, 중국, 인구, 쉘림의 7가지 시그널을 통해 2020년 경제를 미리 분석하며,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진짜 시그널과 진짜 시그널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각각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날카롭게 예측하며, 더불어 머지 않아 불어 닥칠 대규모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자가 될 수 있을지 자신만의 노하우를 담은 투자 전략을 알려준다.

02. 스타벅스, 넷플릭스, 마블, 레드불, 웨이크워 등 성공한 기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춰 전략을 꾸준히 수정하며, 성장하려 했다는 점이다. 아마존, MS, IBM, 델 등에서 컨설턴트로 일한 저자 티파니 보바는 이 책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성공한 글로벌 기업들이 사용한 전략 사례와 각종 데이터, 이론을 통해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전해준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두려워할 만한 것만 두려워하라.”
 - 아리스토텔레스, 용기를 말하다.



글·사진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두려워할 만한 것만 두려워하라.” - 아리스토텔레스, 용기를 말하다.

“우리는 결코 도망치지도, 항복하지도 않아!”

스위스 루체른의 큰 바위에는 죽어가는 사자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른바 ‘빈사(瀕死)의 사자상’이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스위스 용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조각이다. 도대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1792년 8월 10일, 파리 킬리리 궁에 갇혀 있던 루이 16세를 지켜줄 군대는 더 이상 없었다. 대포와 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언제나 궁으로 쳐들어 올 기세였다. 왕을 호위하던 근위병들까지 달아난 상황, 그 때로 루이 16세는 의연했다. 왕은 마지막까지 남은 스

위스 용병들에게 부드럽게 명령했다. “이제 그대들도 철수해도 좋소.” 하긴, ‘고용주인’ 왕에게는 급료를 지불할 능력이 더 이상 없었다. 게다가 승리의 희망도 전혀 보이지 않는 처지에서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들이 굳이 왕을 보호할 이유는 없었다. 하지만 스위스 용병 786명은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왕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모두 전사했다. 도대체 그들은 왜 그랬을까? 장 르누아르 감독이 만든 <라 마르세예즈>(1937)에서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장면이 있다. 달아나던 왕의 근위대 병사가 스위스 용병에게 외쳤다. “도망가라는 지시를 듣지 않았소? 나를 따라 살 길을 찾으시오.” 그러자 스위스 용병은 결연하게 외친다. “우리는 스위스 용병대다. 스위스 용병은 죽는 순간까지 무기를 버리지 않아. 결코 도망치지도, 항복하지도 않아!” 스위스 용병들에게는 “세계최고의 전사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 누구도 이들을 죽일 수는 있어도 이길 수는 없었다.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느니, 용병들은 ‘명예로운 전몰장병’이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보나파르트 나폴레옹도 러시아 원정길에 스위스 용병을 고용했다. 이때도 그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7,000명의 부대원이 700명으로 줄어드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전열을 굳게 지켰다. 나폴레옹 군대가 프랑스로 귀환한 다음에야 그들도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그들의 용맹함은 지금까지도 인정받고 있다. 스위스가 용병이라는 직업을 금지한 지금도, 바티칸에서는 스위스 장정들을 교황의 근위병으로 ‘특별 채용’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호전적인 자가 용감한 자는 아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 384~322)는 전쟁터에서의 용기를 마뜩찮게 바라본다. 전쟁터에서는 죽이

◀ 스위스 루체른에 있는 ‘빈사의 사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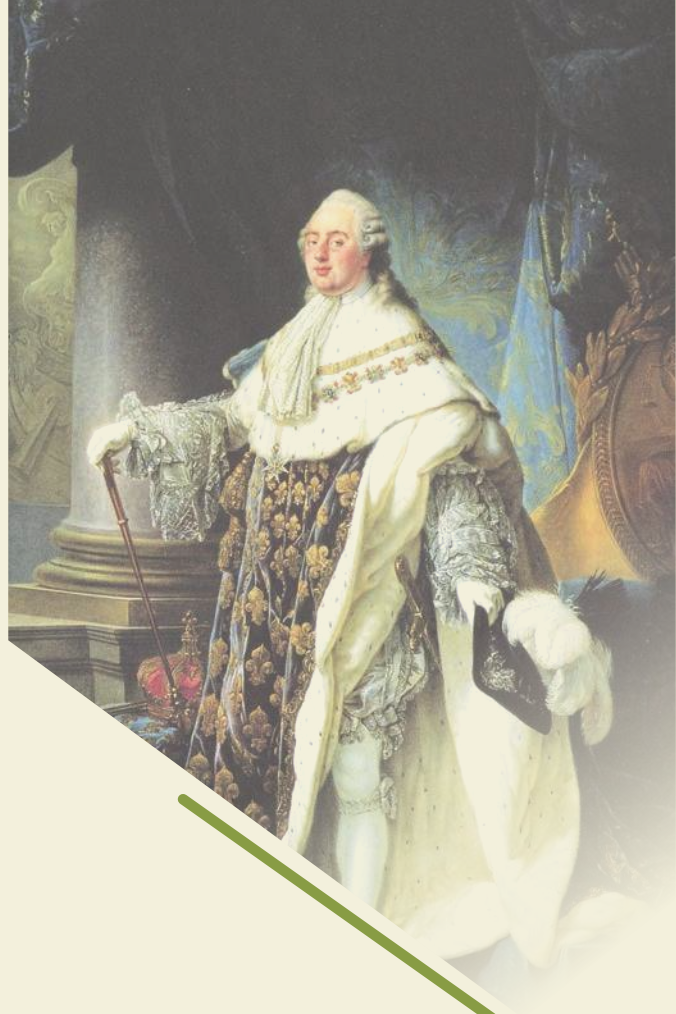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 퇴위된 후 처형당한 '마지막 루이' 루이 16세 ▶

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때문에 겁쟁이도 치열하게 적에게 달려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용기 있다'고 평가하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면 그들은 다시 겁 많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탓이다. 이들을 진정한 군인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들에게서 용맹함을 이끌어 내려면 끊임없이 겁박하고 위협해야 할 터다. 이런 치들에게 군인다운 명예심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나 격정에 휩싸여 위협을 무릅쓰는 이들도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호전적이기는 해도 용감한 자는 아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먹이통을 떠나지 않는 당나귀가 용감할까? 욕정에 휩싸여 위협을 아랑곳하지 않는 짐승은 또 어떨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절절한 감정에 휩싸여 용맹을 발휘하는 모습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용기를 떨치게 하려면 끊임없이 그들이 욕정에 휩싸이거나 화가 치밀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군대 역시 '정상적'이라 보기는 어렵다.

“두려워할 만한 것만 두려워하라.”

그렇다면 용자(勇者)란 어떤 사람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만한 것을 마땅한 동기에서, 마땅한 태도로, 마땅한 때에 두려워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용기 있는 자에게도 두려움은 있다. 용자라 해도 겁에 질릴 때가 왜 없겠는가. 허나, 그는 “두려워 할 만한 것만 두려워할 줄 안다.” 용자(勇者)가 무서워하는 대상은 무엇일까? 그는 불명예만은 피하려한다. 그가 용감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귀하기 때문”이다. 만약 다르게 처신한다면 자신이 비천해질 터다. 한마디로, '자기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 분연히 용기 있게 나선다는 뜻이다. 부상이나 죽음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다. 이를 원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반면, 진정한 명에는 이들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는 가운데 맺어진다. 이는 생존과 쾌락에 휘둘리는 여느



생명체의 수준에서는 다다르기 어려운 경지인 까닭이다. 진정한 명예심을 품은 자들의 자아는 죽음의 위협을 넘어선 곳에 있다. 그들은 '마땅한 때에 마땅한 이유에서, 마땅한 태도로 희생하는' 길을 안다.

“진정한 용기는 성품에 새겨져 있다.”

군인은 위협을 무릅쓰는 직업이다. 군인에게 '용병'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치욕으로 다가온다. 이익이 있을 때만 대답해지는 사람은 진정 용기 있는 자가 아닌 까닭이다. 마찬가지로, 위협에 부딪혀야만 비로소 위기에 맞서는 자들도 용자는 아니다. 공포가 사라지면 이들은 편안함과 이로움을 좇는 본능 수준의 존재로 되돌아갈 터다. 진정한 용자는 성품(ethos) 속에 용기가 뿌리 내리고 있다. 이는 아무나 갖추지 못하는 인간 최고의 덕목이다. '빈사의 사자상'에 마음이 숙연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싸우는 용병(傭兵)이라기보다, 용기가 뭔지를 세상에 알려준 용병(勇兵)들이었다. 진정한 군인의 영혼에는 용기와 명예심이 새겨져 있다. 그대도 이러한지 되물어 볼 일이다. AF

생각하는 그림

진열대 앞에서

한 식료품점에서 고객들에게 24개의 잼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평소에는 6개만 제공됐던 것과 달리, 잼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샘플 앞에 멈춰 잼을 맛보는 고객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자연스레 판매량도 증가할거라는 기대와 달리, 잼을 구매하는 고객의 수는 줄었습니다. 오히려 샘플을 6개만 제공했을 때의 잼 판매량이 샘플 수를 늘렸을 때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선택 상황에서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기 위해 시행된 실험이었으며, 이 실험은 선택지가 많아지면 반대로 결정이 어려워지는 '과부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진은 인간이 선택을 내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피실험자에게 선택지를 주면서 그 영역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실험 결과 선택지가 일정 수를 초과하면 뇌의 활성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만족감이 줄고 심리적인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져야하는 것이죠. 선택지가 늘어남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연구진은 8개에서 15개 사이의 선택지가 사람에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훨씬 많은 선택지를 만나게 됩니다. 치약 하나를 사러 가도 성분, 향, 크기, 가격 등이 천차만별이어서 무엇을 골라야할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또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용해 수백 개의 영화를 내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어떤 영화를 봐야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한 영화를 몇 분 보지도 않고 다른 영화가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에 영화를 꺼버리기도 합니다.



산업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매일같이 새로운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에 내 취향에 맞는 상품을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내가 내린 결정에 후회하는 일이 많다면 진열대 앞에서 장시간 고민하는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을 소비하는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과정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때 선택의 과부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나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선택지 중 어떤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선택의 연속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미래를 그려나가야겠습니다. **AF**



● 기준의 기준 2019?

“찾아라 비밀의 열쇠 미로같이 얽힌 모험들” “거센 바람, 높은 파도가 우리 앞을 막아서도 결코 두렵지 않아.” 내 유튜브 시청 기록을 보면 <디지몬 어드벤처>, <원피스> 등 옛날 만화 영화 주제가 영상이 가득하다. 이런 ‘추억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이 때로 돌아가 모든 근심, 걱정을 잊게 된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은지 추억영상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신기한 것은 모든 추억영상에 비슷한 댓글이 달려있다는 점이다. 바로 ‘2019?’(2019년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뜻) 같은 댓글들이다. 얼마나 많으면 ‘이런 댓글 좀 그만 달라’는 댓글까지 있다. 2000년, 2003년에 방영된 디지몬과 원피스를 추억하는 순간에도 ‘지금’이 몇 년도인지 그렇게 중요할까.

이 짧은 문장에는 사실 복잡 미묘한 감정이 담겨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소.” 유명한 노래 가사처럼, 애달프게 누군가를 찾는 듯하다. 바로 나와 같이 2019년을 살고 있으면서 나와 같은 추억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다. 내가 좋아했던 추억의 만화들이 방영된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인터넷이라는 창고는 낡지도 가득 차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추억영상에는 ‘18년, ‘17년, 그리고 훨씬 이전에 달린 댓글들이 가득하다. ‘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댓글들은 화석과도 같다. 말없는 화석들이 가득한 무인도에서 동료를 찾기도 하듯 소리친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나처럼 2019년에도 추억 때문에 이 영상 보러 오신 분 없소.”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에 의하면 기억의 주체는 개인이지만, 개인의 기억은 파편화되어 있고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진정한 의미는 타인과 연결을 통해 그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억과 추억에 있어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추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억은 항상 이야기로 남는다.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옛 친구와의 대화를 돌이켜보면 매년 같은 추억 얘기를 꼭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동창들과 친구와 장난치다 선생님께 혼났던 추억, 서로

다뤘던 경험 등을 항상 얘기하는데,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이야기의 구조는 간결해지고 고정된다. 그러면서 이야기는 더욱 힘을 갖게 된다. 이야기로 남은 추억 그 자체도 마찬가지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희미해질지라도 추억은 더욱 강해진다.

결국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일은 공동체를 발견하는 일과도 같다.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세대라는 공동체로 묶이고, 한 국가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집단은 국가 공동체로 묶인다. 처음 만나지만 나이가 같은 사람, 먼 외국 땅에 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2019?’라는 댓글은 방 안에서 나와 유사한 문화, 사회적 경험을 가진 공동체를 찾아 부르짖는 외침인 것이다.

2019년 현재, 월간 『공군』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쓰이고 있다. 지난 8월호에 실린 800기 신병들의 이야기, 제38전투비행전대 수송중대의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한 번도 만나본적 없는 그들이지만 공군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동시대의 감각’을 느끼게 된다. 내 옆에 함께 있는 것 같고, 나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것만 같은 아주 특별한 감각이다.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공군 조직의 생명성을 느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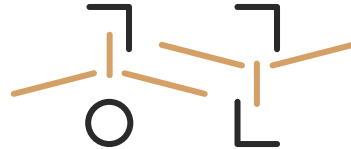
공군 창군 70주년을 맞이하는 해, 수많은 사람이 공군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다. 다시 또 30년이 흘러 100주년이 되어도 ‘공군’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추억이 될 것이다. 공군을 떠나서도 공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지금 공군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공군이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다. 공군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로 남아있고, 또 어떻게 남을까. 그리고 나는 공군인 중 한 명으로서 그 이야기의 어떤 한 조각이 될 것인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군을 사랑하는 누군가 이 글을 다시 보게 됐을 때, 나 역시 여전히 공군을 사랑하고 추억하며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겨본다. ‘2049?’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 □ □ □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공군인의 편지’를 보내주세요.
창군 70주년을 맞이한
공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기념품’과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moa5819@af.mil
인 터 넷(E-mail) afzine@korea.kr
전화번호 042-552-6943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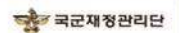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별도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 9월 30일까지

2기 군인연금증서(카드형) 발급사업 시행 안내



국군재정관리단에서는 연금수급자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기 군인연금증서(카드형) 발급사업 시행을 통한 금융혜택을 대폭 확대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발급사업자**

사업자	KB국민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사업기간	'19.2.8. ~ '29.2.7.(10년)	
서비스	카드할인혜택 + 은행우대혜택(대출·이율·예적금 등) 추가	

● **사업자별 제공혜택 요약**

·주유소 : 75 ~ 80원 / ℓ	·통신료 : 1.5 ~ 2.5천원	·영화 : 1회 5 ~ 6천원 / 연 6 ~ 12회
군 복지시설 할인혜택(골프장, 휴양시설) : 3 ~ 5만원		
대출한도 : 개인신용 고려 연간수급액 120% ~ 180%		
대출금리 : 우대금리 고려 2.75 ~ 4.09% 대출금리 적용		
타행 ATM 현금출금 시 수수료 면제혜택 : 무제한		
예금금리 : 1.95 ~ 2.6%, 적금금리 : 1.5 ~ 5.80%		

※ 상기 혜택 중 일부는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군인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지점 방문 후 확인 가능

※ 군인연금증카드 : 종이형 연금증서 대체, 신용·체크·일반카드 기능, 軍 복지시설 신분확인 가능

● **발급방법**

- 전역자 : 기존 보유 연금증서(카드형/종이형) 또는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소지 후 은행지점 방문
- 신규 연금수급자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소지 후 은행지점 방문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발급방법**

- 본인 신분증 사본, 연락처, 용도(군인연금증서 신청용) 및 받으실 우편주소(또는 FAX번호)를 재정단에 송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20-1호 국군재정관리단 민원실
※ F A X / 연락처 : 02)3785-0443 / 02)3146-6016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편집실에 하고 싶은 말,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9
4 9 5

대한민국 공군 학사사관 후보생 제144기 모집



지원자격

임관일 기준 만 20세~27세 대한민국 국적의 남 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자는 만 30세까지 지원가능
-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박사학위과정 수료자 및 실무 수습 후
공인 회계사 등록을 한 자는 만 29세까지 지원가능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대학졸업 예정자 및 학사 학위 취득 예정자도 지원가능
단, 졸업예정자는 입영예정일까지 학위 취득시 입대 가능

모집일정

지원서 접수	8월 23일 ~ 9월 19일
필기시험	10월 12일
1차전형 합격자 발표	11월 15일
2차전형(신체검사 및 면접)	11월 25일 ~ 11월 29일
2차전형 합격자 발표	12월 6일
3차전형(1 2차 종합/신원조사)	12월 20일 ~ 20년 1월 17일
최종합격자 발표	'20년 1월 31일
입영예정일	'20년 2월 24일

지원방법

공군모집 홈페이지 <http://go.airforce.mil.kr:8081> 접속

→ 학사사관후보생 제 144기 모집공고문 확인

→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서 작성하기 (접수기간 중에만 작성 가능)



「마음의 소리」



박한별 (부산시 사하구)

공군 군무원 시험을 위해 2년 반을 서울서 홀로 지냈습니다. 고향인 부산에서 부모님이 절 보러 오셨는데 항상 혼자였던 이곳에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위해 아주 짧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평평 울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고 보고 싶어서... 행복했던 추억은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쓴 시입니다. '행복은 짧기에 눈물겹게 행복하다/ 두 뺨에 흐르는 눈물은 뜨겁고/금세 달려와 어루만질 것 같은 두 손은/이제 고이접어/마음만큼은 차가워져야 한다.'

편집실 홀로 타향살이를 하는 건 참 힘든 일이지요. 외로운 시간에 월간 『공군』이 많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공군의 일원으로 다시 만나요!



김만재 (부산시 영도구)

장교로 3년을 복무 후, 전역한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공군』을 보고 옛 생각도 나고, 정든 공군에 대한 기억을 계속 채우고자 구독신청을 했네요. 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리를 지키는 공군인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도전·인내·책임감... 세월에 덮인 내 자신을 채찍질 하는 것 같네요. 모쪼록 늘 좋은 기사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실 공군에 대한 회상을 듣다보면 왠지 저까지 아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독자님 역시 공군인으로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리를 지키셨겠지요? 앞으로도 『공군』 편집실은 공군을 향한 그리움을 채워드릴 수 있도록 도전, 인내, 책임감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허호영 (대전시 유성구)

최근 임시정부 100주년, 공군 70주년 등 여러 기념일 또는 행사로 우리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길가의 전적비나 전쟁 영웅들의 동상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면 그들의 노고를 벌써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저는 월간 『공군』의 '오늘, 우리 하늘' 코너를 보며 공군의 아버지가 누군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군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공군의 미래도 밝아지겠지요?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공군지 파이팅!

편집실 '그날, 우리 하늘'은 편집실도 매달 원고를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우는 코너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역사도 새롭게 느껴지게 해주죠. 역사는 아는 것만큼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간 『공군』은 독자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도록 공군의 다양한 공군역사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허태운 (경남 사천시)

올 6월에 전역한 778기입니다. 지난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학창시절 못지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일과시간 후 틈틈이 학습해 자격증 시험은 물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대학 학점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영생활 동안 나눈 전우애는 훈훈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7월 17일(제헌절)에 입대해서 6월 25일에 제대했으니 더욱 더 잊지 못할 일입니다. 공군 복무를 동력 삼아 앞으로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해 봅니다.

편집실 독자님, 2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군에서 보낸 시간이 보람차다고 하시기 편집실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전역 후에도 월간 『공군』으로 공군과 계속 함께해주세요. 저희도 독자님의 업서를 동력 삼아 앞으로 더욱 멋진 『공군』을 만들겠습니다. 독자님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4 9 5